

광주 밖에서 광주 안으로 걸어 들어온 이들의 문화 여정

광주에서

문화를

한다는 것

광주문화기관협의회

광주에서
문화를
／
한다는 것

Prologue

문화의 경계 허물기

문화에도 지역의 벽이란 게 있는 것일까. 설령 존재한다 해도 타자가 되어보기 전에는 알 수 없을, 보이지 않는 벽일 것이다. 아시아 속에서는 아시안임을 실감하지 못하고, 광주 안에서는 광주의 외피를 느끼지 못하는 법이니깐. 그렇다면 타자의 시각에서 바라본 광주문화는 어떨까. 스며들기엔 어떠하고, 즐기기엔 어떠할까.

흔히 말하듯 어쩐지 무겁거나, 말 걸기가 쉽지 않거나 혹은 궁극의 노잼도시인 걸까. 특히나 ‘창조적인 사람들’에게 광주는 어떤 걸을 느끼게 하는 도시일까. 까칠한? 혹은 무감한? 아니면 배타적인?

문화라는 것이 익숙한 것과 낯선 것들이 섞여 성장하는 과정이고, 누구라도 걸어들어와 ‘문화’를 해볼 만한 도시야말로 제대로 된 문화도시라는 점에서 광주는 얼마나 열려있는 도시인 걸까.

이러한 궁금증을 갖고 광주문화기관협의회 16개 기관은 ‘광주 밖에서 광주 안으로 걸어들어와 문화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주목했다. 이 책에는 서울이나 부산, 창원, 인천, 전주 그리고 멀리 미국이나 프랑스에서 광주로 건너와 문화 동지를 둔 스무 명의 문화 여정이 담겨 있다. 문화적 외부자였다가 광주문화의 주체가 된 이들의 이야기에는 문화도시 광주의 실제상황이 고스란히 들어 있다. 그것은 생각보다 흐뭇하기도, 때론 아프기도 해서 광주문화의 나아갈 바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광주문화의 경계를 더 넓게 열어주는 다양한 문화적 사건들이 더 자주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 책에 담는다.

광주문화기관협의회

광주 밖에서



광주 안으로



걸어 들어온 이들의



문화 여정



Contents

광주 밖에서 광주 안으로 걸어 들어온 스무명의 이야기

- 10 광주 사람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 걸까요? _ 이하영
- 24 휘발되지 않아야 연결이 된다 _ 가도균
- 36 경계없는 협업을 꿈꾼다 _ 송재영
- 52 지금에서 다음으로 건너갈 수 있기를 _ 김호락
- 62 치유의 힘이 있는 도시임을 기억하길 _ 조숙위
- 72 여행자들만이 아니라 광주 사람들을 기다린다 _ 신현창
- 86 주체와 타자 사이의 경계를 넓히기 위해 _ 김안나
- 98 더 넓게 더 자주 유기적 문화교류를 _ 김성환
- 110 삶의 영역에서 아직 할 일이 많은 도시 _ 정 욱
- 124 상실된 공동체의 이상이 아직도 살아있는 _ 윤석문

- 136 울타리를 깨고 묶인 시대를 건너가야 _ 임현채
- 148 무형의 가치로 성공하고 싶다 _ 김경한
- 162 예술 관광 도시 광주는 지금 진행 중 _ 이나영
- 174 세월의 흔적들이 지켜지는 도시이길 _ 줄리아 플랑드르
- 186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공존하는 _ 박재만
- 196 시립발레단이 있는 유일한 도시답게 _ 박경애
- 208 피지않은 꽃봉오리들이 피어날 수 있도록 _ 이영신
- 222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고 싶어서 _ 박경빈
- 234 허심탄회한 소통을 꿈꾼다 _ 박주리
- 246 예술에만 집중할 수 있었으면 _ 차예지





충남 홍성 출신으로

광주에 정착한 지 6년째다.

전시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다.



이야기 하나



광주 사람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 걸까요?

독립큐레이터 이하영

타지역 작가분들과도 작업을 많이 하는데
광주에는 광주 사람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다.
구분 지으려고 하는 느낌이 있달까?

독립큐레이터 이하영

독립큐레이터 이하영(26)은 충남 홍성이 고향이다. 조선대학교에서 미술을 전공했고, 광주비엔날레 도슨트, 5·18 40주년 기념 오월미술제 어시스턴트 큐레이터로 일했으며 2019년부터는 독립큐레이터 그룹 장동 콜렉티브에서 활동하고 있다.

5·18을 겪은 광주 할머니들의 음식이야기를 다룬 <오월식탁>, 달뫼마을 주민 생애사 전시 <엄마의 정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청년예술가지원사업 전시 사진 연구지원작 선정 <Projet 밥을 넘기다>, <애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었더라> 등 다수의 의미 있는 전시를 기획 진행했다.



저기 작업실 원형 탁자 위에 놓인 플라스틱이나 나무조각은 무엇인가?

전시를 위해 모은 물건들이다. 구제역 매몰지에서 찾고 발굴한 것들인데, 신문 기사는 물론 지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가 당시 용역회사 정보를 알아내고, 발품을 팔아 모은 것들이다.

어쩌면 모두가 공범일 수 있는 참혹한 죽음의 자리에서 찾아온 유물이라 할 수 있다. 비슷한 맥락의 전시일 수 있는데, 지난 8월에는 광주여성가족재단 기획전시 공모전에 선정된 <애도는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를 기획 전시했다. 코로나가 확산된 이후에 폭증한 20대 여성의 자살과 성범죄 피해자의 부고 소식, 가정폭력으로 인해 사망한 여성 등 충분히 애도되지 못한 여성들 이야기를 담은 기획이었다.

코로나로 인해서 유독 여성들이 다양한 이유로 세상을 등지고 있지 않은가. 특히 20대 여성의 자살률이 폭증을 했다. 사라진 여성들이

생활했던 장소를 사진으로 기록했고, 김원경 작가님이 글을 쓰셔서 ‘20대 여성’의 삶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다.

<별이 된 사람들> <오월 식탁> <없는 일을 만들어서> 등 5·18과 관련된 기획들이 많은데?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다. 귀촌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 마을이었는데 부모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가치가 남달랐던 것 같다.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내 집 네 집, 구별 없이 학교 끝나면 남의 집 가서 놓고 물건을 빌리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마을이었다. 내가 어릴 때 느꼈던 공동체, 사람이 사람을 지키고 돌보고 먹이던 공동체가 가능했던 사건이 나는 5·18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지역적 의미가 아니다. 단순히 광주에서 활동을 하기에 5·18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장동 콜렉티브를 처음으로 알린 <오월식탁> 콘텐츠에 대해 소개해달라.

<오월식탁>은 1980년 5·18을 겪었던 할머니들에게 한 가지씩 그들의 요리를 소개받는 영상이다. 할머니들의 레시피로 방앗잎 전도 부치고, 이런저런 요리들을 일러주신다. 대부분 광주 밖의 사람들은 끔찍한 이미지들로 5·18을 만난다. 나 역시 그러했다. 그래서 회피하고 싶은 마음부터 든다. 그걸 알기에 사람들이 끔찍하게만 느끼게 되는 5·18 이야기를 다른 방식으로 해보고 싶었다. 평범한 사람들, 밥을 차리고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평범한 할머니들이 그날 그 자리에 계셨다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꼭 말하고 싶었다.



“사람이 사람을 돌보고 먹이던 공동체가 가능했던 사건이 5·18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지역적 의미가 아니죠.
단순히 광주에서 활동을 하기에 5·18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예요”

<오월식탁>의 레시피들은 어떻게 선정이 되었나.

영상에 담긴 요리는 그리 특별한 건 아니다. ‘요즘 먹을 수 있는 제철 요리’를 할머니에게 직접 추천받거나, 학창시절 드셨던 요리, 과거 이야기와 연결될 수 있는 요리들이다. 요리를 알려주신 분들의 얼굴은 나오지 않는다.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을 했다. 할머니들은 요리를 알려주시다가 피를 흘리며 가던 사람을 집으로 피신시킨 이야기, 양푼에 밥을 담아 시위대에게 밥을 전달하던 이야기를 하신다. <오월식탁>이 타자의 시선에서 느꼈던 다가갈 수 없는 오월을 우리만의 방식으로 담았던 기획이었다면 <없는 일을 만들어서> 전시는 좀 다른 접근이다. 총 4개 부문으로 구성했는데 ‘없는 일을 만들어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지’, ‘없던 일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린 없는 일을 만들었네’, ‘없는 일을 만들어-서, 우리’로 구성되어 있다. 도입부인 ‘없는 일을 만들어서’에는 신문 자료와 기록 문서 등을 재편집한 설치물이 전시된다. 1980년 5월 ‘없는 일을 있게 한 소문과 왜곡의 말들’을 조명하고자 했다. 미래를 이야기하기 전에 과거의 일을 응시해보고 싶었다고나 할까.

장동 콜렉티브의 전시는 형식은 새롭고 감각적인 반면 다루는 이슈들은 사회적 무게가 있다. 그래서 성장 과정이 어땠을까 궁금하다.

부모님은 목표를 쫓지 말고 가치를 쫓으라는 말씀을 하셨다. 직업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이루기 위한 수단처럼 생각하면 된다고. 그런 말을 염두에 두면서 살다보니 나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평등하고 진실되게 연결되는 세상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것 같다. 미술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효과적인 것 같았다. 영화, 소설,

정치, 사회 운동 같이 더 직접적인 수단이 있기도 한데 내가 생각하기에 미술은 당연한 게 없는 분야, 말이 통하지 않는 세계 같았다. 어떻게 봐야 하는지 모르니까 계속 궁금해하다가 스스로 찾게 된다. 원래 그런 게 어디 있어. 어떤 이야기일까. 작가가 왜 이렇게 해놓았을까. 이런 걸 생각하는 걸 좋아한다. 어릴 때부터 나는 “왜?”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했다고 하더라.

대안학교를 다니다가 큰 의미가 없게 느껴져서 학교를 그만두고 독일에서 살고 계시던 부모님 친구분께 무작정 메시지를 보내서 유럽에 갔었다. 그때가 18세여서 미술관이나 문화예술기관이 다 무료더라. 그래서 계속 걷고 싸구려 숙소에서 자고 미술관을 보러 다녔다. 사람들이 예술작품을 보는 태도를 보면서 예술의 중요성에 대해 많이 생각했다.

연고가 없는 광주에서 ‘컬렉티브’를 하는 까닭은?

미술 쪽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독일의 영향과 함께 광주비엔날레 영향도 컸다. 결국 대학도 광주로 오게 되었는데 학교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가까운 데 있었다. 라이브러리파크라는 도서관도 그렇고 아시아문화전당의 공간들을 정말 좋아한다.

물론 친구들이랑 장난치면서 지방에서 이런 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자조적으로 말하기도 하는데, 사실 나는 오히려 다 갖춰져 있지 않아서 재미있을 때도 많다. 작품 하나 만들 때도 좀 돌아가면서 다른 길들이나 방법들을 알게 되고 거기서 배운다.

장동 컬렉티브는 대학 동창 소진이랑 졸업하고 딱 2년만 하고 싶은 것 다 해보자고 시작한 일이다. 우리가 주로 하는 일이 전시 기획인





데, 전시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작가들은 물론 설치, 포스터, 디자인, 제작, 각종 업체 사장님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공동창작물이 전시다. 프로젝트를 하는 순간만큼은 임시지만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컬렉티브'라는 표현을 고집하고 싶었다.

감각과 지향을 갖춘 좋은 기획자가 되기 위해 어떤 공부를 하는지 궁금하다. 책 읽는 것을 진짜 좋아한다. 소설부터 성경까지 가리지 않고 보는 편이다. 시를 특히 좋아하는데, 그냥 막연히 알고 있으면서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을 대신 표현해준다고 생각했다.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는 전시 제목도 고정희 시인의 시에서 따온 거다. 최근에는 한강 작가의 신작 소설을 읽었는데 참 좋았다. 관심사에 따라서 다큐멘터리도 보고 관련 행사를 찾아보기도 한다. 요즘은 아무래도 환경 쪽을 많이 보고 있고.

사실, 졸업 후 3년 정도 쉽 없이 활동하다 보니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점점 고갈되는 느낌이긴 하다. 그래서 대학원에도 갔고, 함께 일하는 김소진과도 뭉치고 흩어지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각자 활동도 하고 그러자고 했다. 나는 기획과 글쓰기에 관심이 많고 소진이는 예술 행정, 복지 쪽에 관심이 많아서 따로 또 같이 활동하며 각자 역량을 쌓아가는 중이다.

전시기획자도 생활인이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또 부모님 얘기를 하게 되는데 돈을 보고 살면 돈밖에 못 얻는 데 돈 이상의 것을 보면 돈은 따라온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 살다 보니

그 말이 틀리지 않더라. 일을 하면서 큰돈이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가끔 돈이 되는 프로젝트팀에 가서 용역으로 일을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살게 된다. 공모전에서 시상금이 들어오기도 하고 프로젝트 의뢰가 들어오기도 하고. 처음 시작도 공모전에서 소소한 상금을 받아서 시작했는데 사무실도 없이 카페에서 일하다가 조금씩 조금씩 일을 늘려왔다.

사실 청년들의 두려움과 무기력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크지 않나. 그런 것 때문에 대학원도 사회학과에 가게 됐고, 천천히 궁금한 것들을 배워가는 중이다. 이 일의 특성상 여러 단계에서 여전히 지원을 받아 작업을 하는데, 사실 가장 어려운 점은 지원받은 돈을 프로젝트에 쓰는 방식이다. 지원금 집행 내역 기준이 사람한테 인건비로 쓰지 못하게 되어있는 경우가 많다. 예술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인데 사람에게 돈 주는 것을 아까워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젊은 여성 기획자의 길은 어떤가.

나이 어린 여성 기획자라는 점이 약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관련 업체 사장님들도 어린 여자애들 둘이다 보니 귀 기울여 듣지 않으신다거나 자세히 안 알려주신다거나 그런 점들이 아무래도 있었고 껄려리 대표님이나 미술관 대표님이랑 의견조율 과정에서 오는 어려움들도 감당해야 한다. 그래도 둘이라서 버틸 수 있었던 것도 있고 겪으면서 활동하다 보니까 오히려 되게 막 센 척하면서 당당하게 나갈 때보다 솔직하게 어려움이나 내 나약함을 드러냈을 때 수월하게 될 때가 많았다. 오히려 진심을 드러냈을 때 연결이 됐던 것 같다. 힘들 때면 소진이랑 마음과 마음은 통한다. 마마통! 마마통! 이러면서 웃는다.



“<애도는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는 코로나가 확산된 이후에 폭증한 20대 여성의 자살 등 충분히 애도 되지 못한 여성들 이야기를 담은 기획이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유독 여성들이 더 세상을 등지고 있기에...”

시각예술을 매개로 대중과 소통한다는 일이 쉽지 않을텐데.

같이 활동했던 작가님이 전시를 할 때 뭘 나눠주면 좋다고 하시더라. 그래서 쌀도 나눠드리고 할머니들 레시피도 같이 나눠드리고(웃음) 사소하지만 미술관에서 뭔가 좀 가져가는 걸 되게 재밌어하시는 것 같다. 전시마다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진이나 영화, 책에 대해서는 좋다, 안 좋다 등을 가볍게 이야기하는데 유독 미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어려워한다고 느낀다. 그런 말을 하면 내가 무식해진다고 느끼시는 것 같다. 저마다 다른 관심 분야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아 자유롭게 이야기하다가 좋아하는 작업스타일도 생기고 좋아하는 작가도 생기고 그러셨으면 좋겠다.

독립 큐레이터 이하영에게 광주는 어떤 도시인가? 어떤 바람이 있는가.

광주에 와서 좋은 기획자들, 활동가들을 많이 만났다. 더 많은 이들과 지역에 대한 이야기, 지역의 역사를 기억하고 이야기하고 싶다. 지역에서 예술의 역할과 중요성을 돌아보고 동시에 비슷한 고민을 가진 지역의 젊은 예술인들과 연대해서 생존과 자립, 지속가능한 활동 방안을 모색했으면 한다. 광주에 대해서 바라는 점은 좀 더 서로를 환대할 수 있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타지역 작가분들과도 작업을 많이 하는데 광주에는 광주 사람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다. 쉬운 예로 당장 활동 분야가 조금만 달라도 서로 돕기보다 구분 지으려고 하는 느낌이 있달까? 안 그래도 적은 파이를 나눠야 해서 그런가 싶기도 하지만, 광주에 대해 좀 더 자유롭게 말하고 즐겁게 함께할 수 있는 분위기, 환대하고 환대받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안 그래도 적은 파일을 나눠야 해서
그런가 싶기도 하지만,
광주에 대해 좀 더 자유롭게 말하고
즐겁게 함께할 수 있는 분위기,
환대하고 환대받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경기 이천 출신으로

2018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무대 조감독으로

광주와 인연을 맺었다.

무대감독 외에도

축제나 유튜브 콘텐츠를 기획한다.



이야기 둘



휘발되지 않아야 연결이 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무대감독 가도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에서

주위를 둘러보면 무등산까지 보이는데 너무 아름답다.

이런 곳이 전국적으로도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아시아문화와 관련된 것들이 실질적으로 다가올 수 있었으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무대감독 가도균

경기도 이천이 고향인 가도균(28)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무대감독이다. 2018년부터 시작한 일이니 지난 4년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무대에 올려진 많은 창·제작 작품들의 무대 뒤에 그가 있었다. 직장에서는 연출자들이 만든 공연의 무대를 완성해내는 역할을 하지만 직장을 벗어난 휴일이면 그는 또 다른 무대를 만든다. 광주 청년들의 문화 커뮤니티인 심해(深海)와 함께 만드는 유튜브 채널 <완전라디오>의 MC로,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페스티벌 기획자로 활동한다. ‘편안한 심심’보다는 ‘함께 노는 환희’를 원하기 때문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무대감독은 어떻게 하게 됐나?

대학에서 공연기획을 전공했는데, 군대 갔다가 복학하기 전까지 6개월 정도 짬이 났다. 그래서 학교가 있는 서울 말고, 지역에서 한번 살아보자. 부산은 많이 놀러 가 봤으니 그냥 광주에 한번 가보자 하고 왔다. 그때 아르바이트로 여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페스티벌 관련, 홍보 쪽 일을 했다. 한 2개월간.

근데 광주가 너무 좋았다. 그 일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연결이 되면서 계속 일을 하게 되었다. 좁은 지역사회이고 문화 쪽 청년들은 연결되어 있다 보니 행복했다. 졸업 후에, 서울에서 잠깐 공연대행사에서 일을 했고, 다시 광주로 왔다. 아르바이트로 시작해서 조감독, 무대감독까지 맡게 됐다.

무대감독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

전체 판을 짜고 공연을 만드는 것은 연출자이지만 공연 현장에서 무대 전문인력을 관리하고, 기계들을 움직이고, 창·제작 공연을 진행하는 것은 무대감독의 몫이다. 무대 사이즈, 세부 수치를 체크하는 일까지 매우 섬세한 부분들이 있다. 세부적인 업무분장으로 봤을 때 무대 전문인력들을 관리하고 극장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것이 제 역할이다. 무대가 시작될 때부터 진행까지 긴장감을 갖다가 무사히 끝나면 안도의 환희가 밀려오는데 재미있다. 대학에서 주로 배웠던 것은 예술행정이었지만 일할 때마다 아, 나는 현장 체질이구나, 하고 느낀다.

주5일을 꼬박 일하는 직장인인데 휴일에 또 다른 무대를 만들고 있는데.

어머니한테 배운 건데 ‘그냥 하고 보자’, 이런 마음이 크다고나 할까. 일단 하면 거기에 배움이 있겠지, 무기력할 때도 있었지만 그런 좌우명이 계속 내 자신을 끌고 간 것 같다. 2017년도에 심해 주최로 딥오션 댄스 뮤직 페스티벌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에서 열었는데, 이런 파티도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브랜드화를 시켜서 계속 끌고 가는 시리즈 파티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고 유튜브 채널인 <완전라디오>도 1회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계속 해보자, 하다보면 뭐가 나오겠지, 이런 생각을 했다. 꾸준히 하는 것에 대한 멋있음을 알게 됐다고나 할까.

꾸준히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다보면 기회는 더 많이 오는 것 같고, 휘발성이 아닌 진정성과 솔직함, 꾸준함이 가장 좋은 게 아닐까 생각한다. 휘발되지 않아야 사람들은 계속 연결이 된다.



“학교가 있는 서울 말고, 지역에서 한번 살아보자.

부산은 많이 놀러 가 봤으니 그냥 광주에 한번 가보자 하고 왔죠.

와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페스티벌 관련, 홍보 쪽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광주가 너무 좋았어요.”

청년커뮤니티 심해(深海)를 좀 더 알고 싶다.

좀 심심하고 외로워서 청년들끼리 같이 놀고 싶어서 만든 모임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페스티벌을 정말 좋아한다. 그런데 페스티벌을 보기 위해 계속 서울을 다닐 수는 없었다.

광주에는 페스티벌이 왜 없지? 고민했고, 그러면 우리가 만들지 뭐! 이렇게 해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에서 이틀 동안 아까 말씀드린 딥오션 댄스 뮤직 페스티벌을 진행했다. 심해에서 파티를 하면서 만난 서예은, 정민교라는 친구와 함께 <완전라디오>도 같이 하게 되고. 그렇게 즐길 것이 없으면 만들고, 놀 것이 없으면 놀 것을 마련하면서 5년쯤 지나다 보니 여기저기서 불러주시고 그게 다 일로 연결되고 있다.

없던 것들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랄까 에너지 같은 게 어디에서 올까?

나의 기획은 문제를 발견하는 데서 온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 원동력은 ‘분노’와 닮았다. 그런 공간이 왜 없지? 분노하다가 없으면 만들어서 논다. 왜 우리는 항상 놀려면 서울을 가야 돼? 광주에는 왜 파티가 없어. 분노하다가 없으면 그냥 만든다.

코로나 직전에 심해 친구들과 대만으로 여행을 갔는데 가기 전에 그 쪽 커뮤니티에 연락을 다 돌렸다. 우린 대한민국 광주라는 곳에 있는 디제잉도 하고 페스티벌도 하는 커뮤니티다.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정말 친절하게 우리랑 뭔가 해보고 싶다는 긍정적인 답이 왔다. 놀러 간 것인데, 재원도 대준다는 것이다. 그때 그 사람들이 얘기하더라. D.I.Y해라. 없으면 만들어라. 뭐가 문제냐. 그 친구들이 우리보다 한

참 어린애들이었는데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일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정말 많은 자극을 받았다.

진행을 맡고 있는 <완전라디오>에는 미용실 원장님부터 온갖 광주분들이
다 나온다.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

코로나가 터진 지 5개월쯤 된 작년 7월 즈음, 너무 심심했다. 사실 술
자리에서도 진지하게 대화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다. 유튜브나 넷플
릭스보다 실제 사람 이야기가 더 재밌다.

처음에는 진짜 그냥 했다. 인스타 라이브 방송으로 주로 지인들을 인
터뷰하다가 나중에 유튜브에 올리게 됐다. 블로그에 올려볼까 했는
데 그렇게 하면 뭔가 내 식대로 정리하고 고칠 것 같았다. 정말 생
(生)라이프로 고치지 않고 올리자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유튜브에
콘텐츠가 쌓이고 시간이 가니 뭔가 연결도 되고 일도 생기기 시작했
다. 광주콘텐츠코리아랩, 서울 청년청 같은 곳에서 연락이 오고 지원
도 받게 되었다.

사람을 통해 만나본 광주 사람들의 풍경은 어떠했나?

일단 사투리가 너무 생소했다. 지금은 익숙한데 초반에는 알아듣지
 못하는 부분도 많았다. 지금까지 스물다섯 분을 만났는데 구시청 쪽
에서 이십 년 이상 해장국집을 해오신 사장님, 미용실 원장님, 청년
디자이너, 토박이 뮤지션 등등 다양하다. 스타는 없지만 진솔하게 자
기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을 만나다. <본인 소개>, <자신이 하는
일과 의미>, 다음에 <동네 자랑>, 마지막에 <뭣이 중한디?>라는
컨셉으로 얘기를 하는 형태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보면 광주분들이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크다는 걸 알게 된다. 완전 자신 있게 자랑을 하신다. 그래서 예향이라고 하나 생각도 들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출연자는 누구였는지.

광주극장 김형수 대표님이다. 서울시 청년 교류 공간과 콜라보했던 방송 <한여름 밤의 광주행 라디오 열차:여름 마실>중 두 번째 방송이었다. 떨면서 진행했는데 김형수 대표님이 너무 재밌으시고 생각도 깨어있으신 데다 얘기가 잘 통하는 분이어서 즐거웠다.

사실 다른 스물네 분 모두가 즐거웠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구나. 사람들에게겐 나름의 고민들이 진짜 확실히 있구나, 싶었다. 소주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인 데다 시청자들이랑 실시간 댓글로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답하다 보니 기대 이상의 소통이 되는 느낌이랄까.

무엇보다 좋은 것은 사람들의 고민과 생각들 속에서 내 인생의 답을 찾는 느낌이 있다는 것이다. 그분들의 생생한 인생이야기가 라디오 스트리밍으로 아카이빙 된다는 사실도 보람이 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나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완전라디오>를 끌어간다고도 할 수 있겠다.

어떤 환경이 '끊임없이 기획하는 가도균'을 만들었던 걸까?

고향은 경기도 이천인데 어머니가 지산락페스티벌이 열리는 쪽에서 스키샵을 하셨다. 열일곱 살 때, 어머니 가게에 갔다가 우연히 페스티벌을 구경하게 됐다. 사람들이 공연을 보고 떼창을 하는 걸 봤는데

“꾸준히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다보면
기회는 더 많이 오는 것 같고,
휘발성이 아닌 진정성과 솔직함,
꾸준함이 가장 좋은 게 아닐까 생각해요.
휘발되지 않아야 사람들이
계속 연결이 되죠.”



너무 좋은 거다. 그 자리에서 생각했다. 나는 이런 걸 만들고 싶다, 이런 일을 해야겠다고. 그래서 공연기획 전공으로 대학을 갔다.

광주의 문화적 인프라는 어떻다고 보는가?

사실 문화적 인프라는 서울 쪽에 더 많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내가 기획한 일, 창작해서 하는 일을 할 수가 있다. 심해를 비롯해서 나를 지켜주는 사람들도 많다고 느낀다. 제2의 고향이 되었다. 환경적인 면에서 봤을 때도 담양이나 화순처럼 자연경관이 좋은 주변 도시들이 있어서 좋다.

특히 제가 일하는 공간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참 좋아한다. 하늘마당 위에 캐노피 쪽에서 주위를 둘러보면 조선대학교와 무등산이 다 보이는데 너무 아름답다. 이런 곳이 전국적으로도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아시아문화와 관련된 것들이 실질적으로 다가올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앞으로 해보고 싶은 일은?

하늘마당에서 했던 것처럼 야외 음악 페스티벌을 다시 만들어 보고 싶다. 그냥 음악 축제만이 아니라 친환경적이면서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고 싶다.

2017년도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에서 축제를 했을 때 고등학생으로 참여했던 친구들이 지금 우리 크루에 들어오는 걸 보면서 놀랐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그 씨앗이 뿌려져서 이렇게 계속 이어져가는 건가? 이런 것이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축제의 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



“사실 문화적 인프라는 서울 쪽에 더 많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내가 기획한 일,
창작해서 하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
나를 지켜주는 사람들도 많다고 느껴요. 제2의 고향이 되었죠.”

이야기 셋



경계없는 협업을 꿈꾼다

메모리키퍼, 소설가 송재영

나는 이곳이 마치 전해린 작가가 젊은 시절에 갔던
슈바빙 같은 문화도시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여기 계속 사셨던 분들이 광주가 이런 예술도시라는 것을
잘 인정하지 않고 모르시는 것 같다.

서울 출신,

2012년 광주지역 신문사에 근무한 것을

인연으로 광주 정착 11년 차다.

메모리키퍼와 소설가로 활동 중이다.



메모리키퍼, 소설가 송재영

송재영 작가(38)의 필명 타라재이는 산스크리트어로 '고통의 강을 건네주는 어머니'라는 뜻이 들어있다. 그의 기억보관소 프로젝트 Gone through와 맞닿아있는 어울리는 이름이었다. 그의 기억보관소는 2019년 대인시장 예술장터에서 시작되었다. 무작정 사람들의 이야기를 손글씨로 적어주는 것에서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그 후 진화를 거듭하며 지금까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데 송재영 작가의 이력도 기억보관소의 행로와 비슷한 면이 있다. 그는 문예특기자로 국문과에 입학한 후 유명하듯 살아오며 자신의 이력에 스토리작가, 소설가, 독립출판 대표, 메모리키퍼, 유튜버, 문예창작지도사, 큐레이터 등을 덧붙이고 확장해왔다.



기억보관소 프로젝트에 깔린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전문 성우에게 의뢰를 한 줄 알았다.

아니다. 목소리 때문에 내레이션 부탁하는 분들이 있긴 한데 발음은 당연히 성우처럼 전문적일 수는 없다. 내 작업을 내 목소리로 할 수 있는 정도다.

브런치 작가, 미국 인턴십 하우스 키퍼, 북아일랜드 캠프힐 봉사까지 엄청난 게 다이내믹한 경로를 거쳐왔던데.

디지털 장의사를 고용해야 하나? (웃음) 브런치 글 중 보셨다는 인생 보고서는 청년들과 함께 한 <나 리서치 프로젝트>중 하나였다. 내 인생보고서부터 써봐야 충분히 이해가 갈 것 같아서 시작했는데 쓰면서 많이 울기도 했다. 우리집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그러

다 보니 부모님께 손만 안 벌리면 하고 싶은 걸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도 하더라. 살길을 찾느라 다양한 것을 경험했고 도전하고 그랬던 것 같다.

그런 경험들 중 지금의 송재영에게 가장 큰 자양분이 된 것이 있다면?

북아일랜드 영국령에 있는 클라나보간 캠프힐의 경험이 가장 크다. 캠프힐은 성인 정신지체 장애인들 중심의 공동성장 커뮤니티로 자급자족을 기본으로 한 공동체다. 발도르프 교육과도 관련있는데, 장애인들과 함께 공동체에서 생활하며 봉사하는 곳이다. 그 안에서 매일 15분씩 요리를 하며 군대와 같은 생활을 1년 동안 했다. 그분들은 장애가 있는 분들이었고 나는 거기서 봉사하는 입장이었지만 나 역시 의사소통이 안되는 언어장애가 있는 사람이었다. 코디네이터들의 대화는 하나도 이해를 못했으니까.

그 상황에서 소수자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게 되었다. 불운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시아 여자라는 나의 정체성 때문에 굉장히 이상한 오해를 받아 힘들기도 했다. 이런 다양한 경험들로 많이 배웠다. 전에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는데 많이 바뀌었다. 캠프힐 1년을 통해 누구나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누구나 다양한 방면에 성장을 할 수 있으며, 인생이 반드시 계획과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광주와의 인연은 언제 어떻게 시작된 것인가.

스무 살 때는 5·18 행사로 광주를 알았다. 그 뒤로 2012년에 친한 친구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직원으로 오게 되었고 (지금 그 친구는



“스무 살 때 5·18로 광주를 알았고,
친한 친구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직원으로 오게 되면서 친구 따라 광주로 오게 됐어요.
2015년 대인예술시장 별장 메이커스로 선정이 되었을 때,
‘당신의 기억을 보관해 드립니다.’라는 기억보관소를 열었어요.
누구나 잊고 싶은 기억들 때문에 고통받기도 하고 소중한 기억들을 잊어가니까.”

광주를 떠났지만) 그 친구를 따라 같이 오게 되었다. 광주에서 구한 첫 직장은 사회적기업에서 만든 지역의 전통시장을 홍보하는 신문사였다. 비록 건강상의 문제로 오래 일하지는 못했지만 그 곳에서 만난 문화기획자 임보현과 인연이 되어 <더나비 프로젝트-더하고 나누어 비전을 실현하자>에 참여하게 되었고, 독립잡지 <시간과 공간에 대한 방해>를 자체적으로 제작했다.

<시간과 공간에 대한 방해> 등 광주의 예술가들을 인터뷰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왔다는 점에서 2018년 <The sense of life>와도 연결되는데,

<시간과 공간에 대한 방해>를 통해 광주의 청년 예술가들을 많이 만났다. 작업실로 직접 찾아가 인터뷰를 했는데 무작정 공간을 보면서 이 액자는 왜 걸어놨냐 이 테이블은 어떨 때 쓰는 거냐 이렇게 시작해서 그분들이 하는 작업, 요즘 고민하는 것까지 인터뷰를 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분들도 실마리를 찾는 것 같더라. 그 때 만난 분들이 유명해지신 분들도 많고(웃음) 다음 작업으로 연결되고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들었다.

<The sense of life>는 시립미술관 레지던시에서 신인 작가들 인터뷰를 하며 그들의 작업을 함축하고 글로 풀어낸 것이다. 작가들과 이야기를 해나가며 신작을 같이 작업하고 책도 내고 전시도 하게 된 것이다. 책 낼 돈이 없어서 시립미술관에 얘기했더니 이렇게 책으로 내 주셨다. 이 독립잡지를 계기로 2015년 대인예술시장 별장 메이커스로 선정이 되었고, 당시 파트너였던 임보현이 임신 중이라 활동이 어려워 혼자서 할 수 있는 별장 참여 프로그램을 구상하다가 기억보관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기억보관소는 143명의 기억을 수집했던 성공 프로젝트였는데?

당시 대인시장 별장 팀에서는 메이커스 참여자들에게 아트마켓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우리 잡지는 웹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판매를 목적으로 소량 출판할 경우 투자 대비 수익을 낼 수가 없는 구조였다. 더구나 파트너 없이 혼자 해야 하는 상황이라 즉석사진을 찍어주는 일을 하려했는데, 앞 가게와 업종이 겹쳤다.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 고민 끝에 다음 날, ‘당신의 기억을 보관해 드립니다.’라는 문구를 가게 앞에 붙였다. 처음에는 사람들 이야기를 손으로 적어줬다. 그런데 악필인데도 사람들이 오더라. 초반에는 거의 지인이 한 70%였는데 점점 사람들이 오고 한번 왔다가 또 오는 분들도 있었다. 누구나 잊고 싶은 기억들 때문에 고통받기도 하고 소중한 기억들을 잊어가고 하지 않나. 기억보관소가 거기에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기억보관용 타자기가 감성을 더 자극하는 것 같기도 하더라. 영상을 보니 타자기 버스킹을 하기도 했던데.

처음에는 손으로 적었는데 악필이라서 좀 고민이 되었다. 그래서 큰맘 먹고 8만원 짜리 크로바 타자기를 샀다. 그 뒤부터 더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졌고 기억보관소라는 이름도 생기게 되었다. 이후에 조금 더 특별한 타자기로 하면 좋겠다 싶어서 새로운 타자기를 구매하게 됐다. ‘시카고 타자기’라는 드라마에 나왔던 타자기를 개조한 사람이 만든 타자기다. 지금은 내 보물 1호다. 타자기로 채팅을 하는 방식의 영상을 촬영하기도 했고 카카오톡 채널로 사연을 받아서 타자기로 버스킹을 해서 보내드리기도 하고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다.



“나의 작업은 기본적으로 고독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근본이 외로움이다 보니 연결되고 싶다는 욕구가 엄청 크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기억과 이야기 같은 것을 기록하고 물성으로 만들게 되고,
 거기서 또 새로운 이야기가 생겨나고 확장이 되고.”



“다양한 협업들이 경계 없이 자유롭게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학연이나 지연이 보이지 않게 많이 있다고 느껴지죠.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다양한 협업이 자유롭게 이어졌으면...”

여력이 되면 두 세대 더 구매를 해서 스스로 타자기로 기록을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보고 싶다.

큐레이션, 영상기획, 타자기 버스킹, 각종 아카이빙 작업, 요리까지 그동안 해온 일이 끝없이 확장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의 작업은 기본적으로 고독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근본이 외로움이다 보니 연결되고 싶다는 욕구가 엄청 크다. 그런 욕구들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하고 연결되고 같이 참여하고 이런 것들을 자꾸 하게 되는 것 같다.

<국이 식는다>나 <인생보고서>처럼 유독 기록하고 기억하는 아카이빙 방식의 작업이 많다.

현재는 존재하지 않지만 내 안에 있는 시간과 공간이 기억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없는 것, 곧 사라질 것, 그런 것들에 대해 관심이 많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기억과 이야기 같은 것을 기록하고 물성으로 만들게 된다. 거기서 또 새로운 이야기가 생겨나고 확장이 된다.

낮선 도시에서 독특한 기획을 펼쳐왔다. 광주에서 예술가로 산다는 것은?

광주는 나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준 도시, 그런 사람들이 있는 도시다. 첫 프로젝트에서 연결되어 친해진 작가들이 방을 구하고 대출을 받고 이사를 하는 현실적인 일까지 정말 도움을 많이 주었다. 다른 지역들은 작가들이 자기 작업실을 가지고 활동하는 작가들이 거의 없고 작업실이 있더라도 전시 공간을 구하기가 참 힘들다. 그런데 여기는 레지던시도 많이 하고 지원사업도 많다. 작가들이 많으니 한

목소리를 내기도 쉽다. 예를 들면 예술인 지원사업에서 증빙이 너무 어렵고 까다롭다고 목소리를 내면 지원기관에서 수용을 해주기도 하고, 물론 여전히 증빙은 너무 까다롭다고 생각하고는 있다. 또 광주 비엔날레가 있지 않나. 국립아시아문화전당도 있고, 나는 이곳이 마치 전해린 작가가 젊은 시절에 갔던 슈바빙 같은 문화도시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여기 계속 사셨던 분들이 광주가 이런 예술도시라는 것을 잘 인정하지 않고 모르시는 것 같다.

기억보관소 프로젝트와 함께 계획하고 있는 다음 작업이 있다.

작년, 재작년에 너무 힘들어서 글 쓰는 걸 그만두려고 했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카톨릭인데 사주까지 보고(웃음) 거기서 하라는 대로 머리도 길고 손톱까지 길러봤다. 그런데 그 때 썼던 작품이 카카오 페이지의 추리 미스터리 소셜 장편 부문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알렉산드리아의 뇌> 라고, 이제 연재를 할 계획이고 웹툰으로 만들 계획도 갖고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장르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위한 원천스토리를 많이 써놓을 예정이다.

또 기억보관소도 이제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굿즈 개발도 하고 그것으로 펀딩도 하고 싶다. 유랑기억보관소(기억보관소라는 이름에서 앞에 유랑을 붙여서 앞으로 전국 곳곳을 다니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밖에서 1:1로 만나는 자리가 어려워져서 유튜브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사연 읽어주기, 시카고 타자기로 채팅하기, 어르신들의 살아온 이야기를 기록하기, 청년들의 고민을 한 문장으로 기록해 타임캡슐하기 등등.





작가들의 작업을 함축해서 한 단어로 표현하는 인터뷰를 했었다. 그렇다면 자신의 작업을 함축하는 단어는 무엇일까?

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인 것 같다. 회사에 출근하는 건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균형과 감각>이라는 작은 콘텐츠 회사 대표로 일하지만, '작가' 정체성을 갖고 모든 것을 하고 있다. 대부분 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작업들이기 때문이다. 주로 새벽부터 오전에 스토리를 쓰고, 아침에서 오후에는 영상 콘텐츠를 만들고, 저녁에 회사 페이지 작업이나 보고서 작업 등을 하고 있다. 그런데 자유롭게 살다 보면 너무 외롭다. 글 쓸 때도 너무 외롭고 다음 얘기에 대한 힌트를 듣고 싶지만 다 내 얘기를 듣기만 하고 힌트는 주지 않는다. 그래서 자유롭게 살지만 외로울 때는 세상과 연결되는 그런 것들이 내 모든 작업의 근본인 것 같다.

광주에 대한 바람이 있다면?

음, 다양한 협업들이 경계 없이 자유롭게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사실 학연이나 지연이 보이지 않게 많이 있다고 느낀다.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다양한 협업이 자유롭게 이어졌으면 좋겠다.

독립큐레이터 이하영 ——

광주에 대해 좀 더 자유롭게 말하고
즐겁게 함께할 수 있는 분위기,
환대하고 환대받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무대감독 가도균 ——

나의 기획은 문제를 발견하는 데서 온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 원동력은 ‘분노’와 닮았다. 그런 공간이 왜 없지?
분노하다가 없으면 만들어서 논다.
왜 우리는 항상 놀려면 서울을 가야 돼?
광주에는 왜 파티가 없어.
분노하다가 없으면 그냥 만든다.

메모리키퍼, 소설가 송재영 —

광주는 나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준 도시.
그런 사람들이 있는 도시다.

...

그래도 누구나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누구나 다양한 방면에 성장을 할 수 있으며,
인생이 만드시 계획과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BUTTON

ANIMATION STUDIO



경북 포항 출신.

2013년 광주정보문화진흥원

기획창작스튜디오 지원사업 선정 후

광주 정착 8년째.

애니메이션 제작자로 활동 중이다.

이야기 넷



지금에서 다음으로 건너갈 수 있기를

스튜디오 버튼 대표 김호락

내 삶에서 가장 큰 전환점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기획서를 낸 일이었다.
광주는 나에게 제2의 고향이고 기획의 도시였던 셈이다.
쥬라기캅스 스페셜 편에는 무등산과 무등산 수박도 나온다.
전라도 사투리를 하는 캐릭터도 있다.

스튜디오 버튼 대표 김호락

‘로봇’은 예나 지금이나 아이들을 설레게 한다. 스튜디오 버튼은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유아 애니메이션 제작업체다. 버튼의 첫 작품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는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안전 교육 영상으로 활용되고 있고, 아시아 최초로 넷플릭스에 애니메이션으로 입성을 했다. 애니메이션 스토리보드 작가로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스튜디오 버튼의 김호락(41)대표. 경북 포항이 고향인 그가 애니메이션 제작을 시작한 곳은 광주다. 2013년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기획창작스튜디오 지원사업에 선정된 것이 사업 영역으로 뛰어들게 된 계기가 됐다.



스튜디오 버튼 회사 홈페이지에 ‘대표가 먼저 퇴근하는 회사’라는 기업 설명이 있던데 어떤 의미인가.

우리 회사의 특성상 스무 명 직원들 한 명 한 명이 모두 아티스트다. 그래서 회사에 수직적인 직급구조를 두지 않았고, 일 외적인 스트레스는 최대한 주지 않는 환경을 만들려고 한다. 물론 대표가 된 뒤에 어쩔 수 없는 조직의 상황이란 게 발생하기에 지나치게 정적인 관계로만 꾸려가지 않으려 노력도 한다.

대신 내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겪었던 부조리가 없는 조직으로 만들어가고 싶다. 스튜디오 버튼의 상징 로고가 오락기 조이스틱인데 이렇게 오락하듯이 놀자. 신나게! 이런 마음을 담았다.

제작사 대표이면서 총감독이다. 언제부터 그림에 관심을 갖게 된 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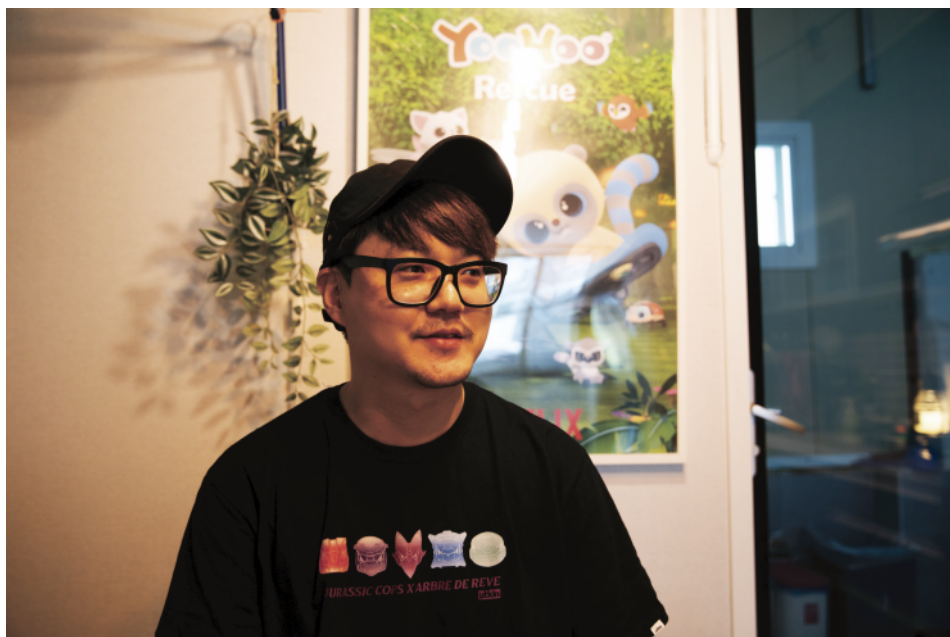
아주 어릴 때부터 흰 종이만 보면 그림을 그렸다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더라. 애니메이션을 보면 마지막에 감독이나 작가의 이름이 나오는데 TV를 보다가 어머니한테 저기에 내 이름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했다고 한다. 고등학교 때는 친구들을 주인공으로 한 슬램덩크 같은 스포츠물을 그려 전교에 배포를 했다. 그때부터 상업적이었던 거지.(웃음)

스토리보드 작가로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대학에서 애니메이션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회사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회사 특유의 정치적인 것들이 정말 맞지 않았다. 누구에게 통제를 받는 것도 힘들었고, 소위 말하는 ‘라인 타기’ 같은 것도 적응이 안되더라. 게다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업계의 대우가 너무 좋지 않았고 생활은 안정되지 않았다. 한창 회사생활을 할 때 이는 대표님이 그러더라. “네 작품은 언제 할 거니?” 그 말이 자꾸 마음에 남았다. 정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스토리보드 작가로 일을 했으니 독립을 하기 위한 경력은 쌓는 셈이었다. 회사를 나온 후에 <로보카 폴리>의 메인 작가를 했는데 입소문이 많이 났다. 그 후 한국의 유아 애니메이션 쪽에서 거론되는 굵직한 작품들을 많이 하게 됐다. 그러던 중에 광주에서 창업을 한 친구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원사업에 내보라는 권유를 하더라.

그 기획안이 바로 전국 초등학교를 강타한 안전교육 콘텐츠 ‘파이어로보’였다.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뚫고 지원을 받았다. 다시 일 년 안에 투자를



“그렇게 몇 개월이 흘러가던 중, 전 국민을 패닉에 빠뜨린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거죠.
이 비극 후에 전국 학교에 안전교육지침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자금이 어떤 자금인데, 하는 생각에
사회적 기여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받아야 해서 1분짜리 티저를 만들어서 마켓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다. 제작사 관계자 방송사들 다 몰려와 명함을 가져갔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에이전시 역할을 해주셔서 방송사 피칭도 했는데 생각보다 크게 관심을 못 받았다. 그렇게 몇 개월이 흘러가던 중, 전 국민을 패닉에 빠뜨린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다. 이 비극 후에 전국 학교에 안전교육지침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런 상황에서 안전 교육 재난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국가 지원금이 생기고 EBS에서 투자가 확정되었다.

세월호 사건이라는 비극 속에 제작환경이 마련되었다는 압박감도 상당했을 듯하다.

그래서 도저히 상업적으로만 갈 수 없었다. 이 자금이 어떤 자금인데, 하는 생각이 있었다. 사회적 기여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 변신 로봇이나 히어로물로 가자는 얘기도 되게 많았는데 다 거절했다. 아이들이 보면서 소방관의 희생과 어려움을 배웠으면 했다. 사실 이 작품을 만들면서 빛이 3억이 생겼고 그 빛 값은 5년이 걸렸지만 정말 의미 있는 작품이고 지금도 기억에 가장 남는 작품이다.

그 이후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유후 투 더 레스큐> 등 전 세계에 방영되는 애니메이션에 한국적 요소가 담겨있어 신선한데.

사실 애니는 무국적 분위기로 만든다는 암묵적인 룰이 있었다. 세계 시장을 염두에 뒀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BTS가 쏘아 올린 한류 열풍에 힘입어 지금은 애니에 한국적인 색깔도 담백 집어넣을 수 있게 되었다. 한국적이어도 세계적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나 할

까. 승례문을 비롯한 한국 문화유산은 물론이고, 유라기캡스 스페셜 편에는 광주에 기반을 둔 회사로서 무등산과 무등산 수박도 나온다. 전라도 사투리를 하는 캐릭터도 있다. 얼마전 영상이 나와서 시사를 하는데 지역 관계자분들이 보시고 정말 좋아하시더라.

아동을 대상으로 콘텐츠를 만들면서 지키는 원칙도 있을 것 같은데.

살아있는 동물을 때린다거나 비록 로봇이라 하더라도 맨몸으로 하는 액션, 불필요한 죽음 등 자극적인 요소가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한다. <유후와 친구들> 시사회를 하는데 슬픈 장면에서 아이들이 너무 울어서 여섯 명이나 상영장을 나간 일이 있었다. 이걸 보면서 정말 놀랐다. 아이들도 좋은 스토리와 좋은 정서에는 다 반응을 한다. 유아 애니메이션은 젊은 부모들도 함께 보는 경우가 많아서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지루하지 않고 감동이 있는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 계속 애쓰고 있다.

애니메이션의 창작 환경은 열악하다는 소문이 많다. 이런 것들이 진로를 정하는 청소년들이나 젊은이들을 가로막기도 하는데.

짧은 시간에 완성된 퀄리티의 작품을 넘겨야 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리스크도 엄청나다. 그러니 흔히 말하는 ‘갈아 넣는다’는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예전에 공중과 애니메이션은 시청률이 40% 이상 나왔다. 지금은 시청률이 1% 밖에 안된다. 광고가 안 붙으니 20년째 편성료가 오르지 않고 있다. 쿼터제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도 공모에서 좋은 작품만 들어갈 수 있으니 경쟁은 심하다. 그래도 언제까지 환경만 탓할 수는 없지 않나. 영화나 드라마 K팝 같은 한국



“1년이면 지원금은 다 쓰게 되고 2년 차부터는 자기 힘으로 버티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미팅에서 거절을 당하게 되죠.
 하지만 힘들어도 3년은 버티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분명히 얻는 것이 많을 테니.”

문화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성공을 하고 있으니 이제 애니메이션의 차례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열심히 치고 나가려고 한다.

광주의 지원사업으로 사업이 출발되었다. 그래도 겪어야 할 것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광주에 와서 창업을 하고, 처음 1년 동안은 뺏속까지 외로웠다. 그때의 외로움이 작품을 만드는 원동력이었던 것 같다. 거절당하고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 말고 지원사업에 많이 도전했으면 좋겠다. 사실은 지원사업을 받는 것보다 그 다음 스텝이 진짜 어렵다. 1년이면 지원금은 다 쓰게 된다. 2년 차부터는 자기 힘으로 버티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미팅에서 거절을 당하게 된다. 하지만 힘들어도 3년은 버티보라고 말하고 싶다. 분명히 얻는 것이 많을 것이다. 물론 대출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받아야 한다. (웃음) 신작에만 집중된 지원사업도 좀 달라졌으면 한다. 사업성이 있는 작품에 지속적인 지원이 없으면 잘될 수 있는 작품도 사라지게 된다. 한해에 프로젝트 개수로 지원 제한을 하는 방식도 금액을 누적하는 방식으로 바뀌면 좋겠다. 5억 짜리 두 개를 하는 것과 1억짜리 두 개를 하는 것이 같은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하지 않나. 광주는 창업단계의 지원제도가 잘 갖춰진 편이지만 중견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얼마 전 광주 남구에 사옥 본사를 마련했다고 들었는데.

내 삶에서 가장 큰 전환점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기획서를 낸 일이었다. 광주는 나에게 제2의 고향이고 기회의 도시였던 셈이다.



광주지원사업의 간판스타로 홍보활동도 해야 한다. (웃음) 사업상 서울에서 미팅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왔다갔다 하면서 일을 하고 있지만 쉬고 싶을 때, 마음이 힘들 때는 꼭 광주로 오게 된다. 또 육전 같은 음식도 정말 맛있지 않나.

어려운 순간에 되새기는 말이랄까, 좌우명 같은 게 있는지.

<오늘만 살자>이다. 뺏속까지 외로웠던 초년생 시절은 지나갔지만 이제 20여 직원들의 월급을 책임져야 하는 대표로서 감당해야 하는 중압감들이 있다. 다음 달, 다음 해, 그 다음의 다음까지 생각하면 너무 막막해진다. 다음날, 다음 달의 일은 다음 날의 내 자신에게 맡기고 오늘만 잘 살아보려 한다.

부산 출신이고

2015년 번역업무로 광주와 인연을 맺은 뒤 6년째.

일상예술가와 번역가로 광주 생활 중이다.



이야기 다섯

치유의 힘이 있는 도시임을 기억하길

일본어 통번역가, 북구문화의집 시민강사 조숙위

“일본에 있다가 한국에 와서 느낀 것인데
문화나 문화교육이 너무 청년층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북구문화의집에서 하는 일상문화 프로그램들이
그런 나의 생각과 맞아떨어지는 대목이 있었다.”

일본어 통번역가, 북구문화의집 시민강사 조숙위

일본어 통번역가와 시민 문화강사. 무엇인 본캐이고, 부캐인지 스스로도 구분짓지 않는다는 조숙위씨(49). 그가 하는 일에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일상 예술가’쯤이 될 것 같다. 연필, 종이, 바늘 같은 일상 속 재료로 쓸모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똑딱 만들어낸다. 드로잉이나 북바인딩 바느질 같은 일상 예술을 이웃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함께 전시회를 만든다. 예술이 특별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 예술적 시선을 지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북구문화의집 시민문화강사 조숙위씨다.



퍼포먼스 행사기획, 문화의집 수업, 행사 통역, 행사 코디 등 해온 일도 다양하고, 살아온 곳들도 여러 곳이다.

부산이 고향이고, 대학 때부터는 서울에서 살았고, 일본 도쿄에서 4년을 살았다. 서울에 있을 때 알게 된 예술가들과 문화의 집 활동을 하다가 연결이 된 행사를 하고 한번 행사를 하고 난 후에 다시 의뢰가 들어온 경우 이리저리 연결되다 보니 일이 많아졌다. 사실 이런 일들은 돈벌이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고 기업체에서 의뢰받는 일본어 통번역이 본업이다.

광주와 처음 인연을 맺게 된 계기는.

2015년에 번역 일 때문에 광주에 왔었다. 그 작업 후에는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가 2017년에 로드스콜라 전남 여행을 통해 북구문화의집과 인연이 생겼다. 북구문화의집 행사 중 시민들이 하는 ‘문산상회’라는

생활공작 가게에 상점을 내보지 않겠냐는 의뢰가 들어왔다.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땡땡 문방구>라는 기획을 내서 다양한 활동을 하다가 이후 프로그램까지 이어졌다. 도쿄에 살 때도 그랬는데, 이상하게 문화하는 사람들과 교류가 많았고, 광주에서도 이어진 셈이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애정이 각별해 보이는데. 일본에 있다가 한국에 와서 느낀 것인데 문화나 문화교육이 너무 청년층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일본에 살 때 보면 동물원이나 공원같은 곳에 낚시 의자 하나 펴놓고 이렇게 스케치하고 계시거나 그림 그리시는 어르신들을 많이 봤다. 대단한 미술교육을 받지 않았어도 나이드신 분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문화를 즐기고 접하는 것이 좋아 보였다. 북구문화의집에서 하는 일상문화 프로그램들이 그런 나의 생각과 맞아떨어지는 대목이 있었다. 사진을 배우고 싶어도 고가의 좋은 카메라가 부담되고, 자전거를 배우려고 해도 몇백만원 짜리 자전거부터 사야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것들 말고 정말로 손쉬운 문화생활, 일상 속에서 편하게 접근하는 문화예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정작 문화가 필요한 건 중장년층이라는 말에 무척 공감한다.

또 일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경험한 것 중 나쁜 것도 많이 있지만 굉장히 좋게 생각된 부분은 중년에서부터 노인까지 본인의 취미가 확실하게 있다는 거였다. 그런 것이 있을 때 개인의 삶이 무척 풍요로워진다. 어반드로잉 같은 게 우리한테는 젊은 사람들이 하는 힙한 취미라는 생각이 있지만 누구나 자기 동네 그리면 되는 거

아닌가. 취미를 가지면 잘 할수록 비교를 하게 되고 SNS에 올리며 신경 쓰고 남의 눈을 많이 의식하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잘 못 그리는 사람들, 아마추어들도 밖에 자리 깔고 그림도 그리고 사진도 찍고 이러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자극을 받을 것 같다. 아이들도 어른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 일상에서 문화나 예술을 누리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앞서 말한 프로그램은 모두 전공과 무관한데 다 배운 적이 있었다. 손쉬운 예술이라고 해도 가르치는 것과 하는 것은 또 다를 것 같은데.

뭔가 무용한 것들을 할 때 즐거움을 많이 느낀 것 같다. 사실 바느질 하고 인형 만들고 이런 걸 해서 뭘 하겠나. 그런데 아무 중압감 없이 수다를 떨면서 바느질을 하고 있을 때 느껴지는 즐거움이 참 크더라. 광주 오기 전에 홍대 쪽에 살았는데 거기서 데일리 드로잉 수업도 듣고 바느질 모임도 하고 그랬다. 이렇게 수업을 할 거라는 생각은 한번도 안해 봤지만(웃음) 북바인딩은 유튜브로 배운 거다. 어디를 다닐 여유는 안되고 유료 온라인 클래스도 외국 바인딩 전문 유튜브 이상의 것들이 없는 것 같더라.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따라 해보면서 몸부림을 치며 배웠다.

동네 분들과 이런 수업을 하다 보면 기억에 남는 순간도 있을 것 같다.

옆자리에 있는 사람 그리기, 본인 자화상 그리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분이 계셨다. 그림 그리는 게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다고 손녀 같은 아이들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해보니깐 너무 즐겁다고 환한 얼굴로 얘기하시고, 아마 보내드린 자료 사진에도 있을 거다.



“광주에 왔을 때 개인적인 상처가 많을 때였어요.

근데 이 도시는 뭐라고 해야 하나.

도시가 갖고 있는 더 큰 상처로 나의 상처를 풀어준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광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트라우마 치료 프로그램이나
이를 바탕으로 한 문화콘텐츠는
다른 도시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깊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리의 우붓에서만 마음의 치유 테라피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

퍼포먼스 기획이나 행사 코디 등의 일은 어떻게 하게 되었다.

주변에 문화 관련된 사람들이 많았다. 서울 살 때도 그랬고 성미산 마을 같은 커뮤니티랑도 알고 지냈다. 친구 중에 퍼포먼스 갤러리를 운영하는 친구가 있는데 광주 퍼포먼스 작가분들, 일본에서 알게 된 퍼포먼스 아티스트들 이런 분들이 공연할 공간을 애기하셔서 어찌다 보니 기획하게 되고 뭐 이런 식이었다. 인연이 되고 나니 공연할 때 일본어 통역, 영어 통역을 하게 되고 그러다 알게 된 작가님이 국제 행사 할 때 코디네이터를 하게 되었다. 전 세계 아티스트들 챙기고 행사 통역하고 그러니 다른 행사들이 또 연결이 되더라.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일들은 거의 안하게 되었고 주업인 번역일을 하고 있다.

일을 하게 된 과정들이 계획적이라기 보다는 자연스런 인연으로 연결되어온 것 같다. 원래 이렇게 자유로운 성향이었나.

먹고 사는 일에 크게 관심이 없고 조직 생활도 싫어하고. 일주일 일 하고 일주일 놓고 이런 스타일? 대학 때도 수유리에 살면서 연극을 엄청 보러 다니고 참여연대에서 사진이나 드로잉 강의도 듣고 그랬다.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건 아니고 좋아하는 사람들 일은 잘 도와주는 편이다. 지금 하는 문화 관련된 일은 수익 창출과는 거리가 멀고, 재료값이 더 들어가는 판이니까. 노후 대책 하나 없이 지내왔는데 최근에 위기를 느꼈다. 코로나로 번역일이 하나도 안 들어왔다. 3월부터 8월까지 한 번도 의뢰가 없었다. 그런데 요즘 줌같은 화상회의로 전환이 되면서 일이 막 들어온다. 정신이 하나도 없다. 일과 취미의 밸런스가 무너져버린 것 같다.

본업은 일본어 통번역이다. 전공이 국문과인데 어떻게 번역일을 하게 되었을까. 글을 쓰고 싶어서 국문과를 갔는데 첫 직장이 드라마 보조작가였다.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 이후 출판사를 갔는데도 똑같은 조직 생활이 안 맞았던 것 같다. 통번역 대학원을 갔고 다른 친구들이 대부분 기업으로 가는데 나는 그냥 프리랜서를 선택했다. 돈 생각 없이 재능기부처럼 독립 다큐 번역일도 하고 성미산 마을 일도 그때 하게 되었다.

지금은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까지 기술 지도에 관련된 통역과 번역을 메인으로 한다. 자동차 연료전지, 볼트, 너트 만드는 거 이런 기술 관련한 통역을 주로 하고 이쪽 분야에서는 꽤 잘한다고 평가 받는 편이다. (웃음)

프리랜서로 낯선 도시에서 자리를 잡겠다고 생각한 것도 평범하지는 않은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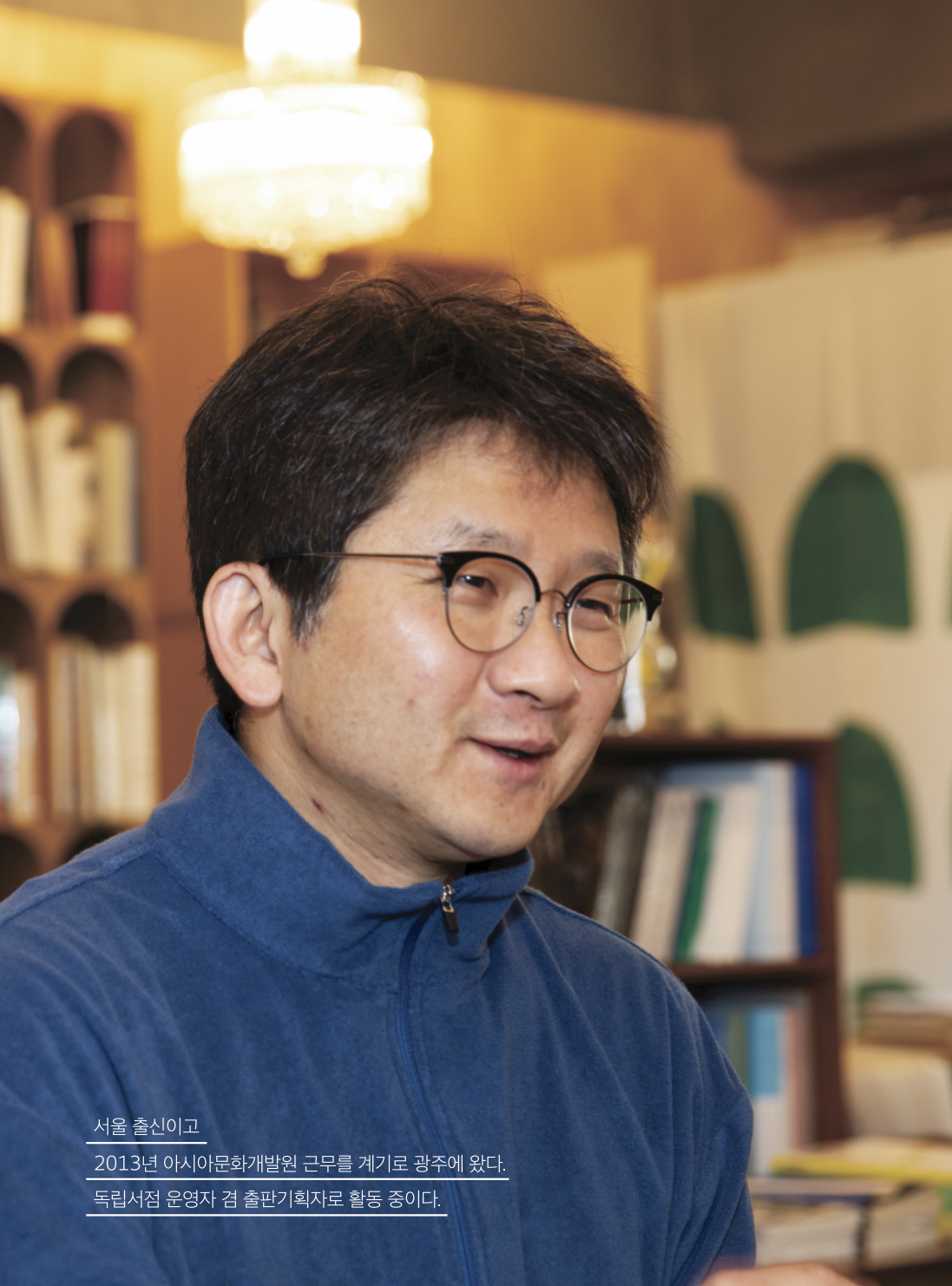
서울에서 한번 일을 하면 이동시간으로 대부분을 보내는 것 같다. 길 위에 그렇게 시간을 뿌리며 경쟁을 치열하게 하는 대도시에서의 삶을 좋아하지 않았다. 먹을 만큼만 벌고 내 시간을 많이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광주에 왔을 때 개인적인 상처가 많을 때였다. 근데 이 도시는 뭐라고 해야 하나. 도시가 갖고 있는 더 큰 상처로 나의 상처를 품어준다는 느낌이 있었다. 이곳에 살려고 온 사람에 대해 굉장히 환영을 해준다는 느낌을 갖는다. 정치적인 성향도 이곳에 더 가깝기도 하고, 떠돌이 기질이 많아서 언제까지라고 말할 순 없지만 지금은 굉장히 만족한다.

아직 광주에 머무르고 있는 이유랄까, 광주에 대한 느낌은 어떠한가.

처음에 많이 갔던 동네가 양림동이다. 그때 달빛 산책 같은 행사가 많이 있었다. 광주에서 창작된 뮤지컬 공연을 한밤중에 관객들하고 본 적이 있는데 참 좋았다. 아시아문화전당 공연이 있을 때 친구들이랑 보러간다. 또 광주비엔날레도 있다. 이곳 북구문화의집도 일상 예술 프로그램들이 좋다. 사실은 집 밖에 일주일 이상 안 나가도 아무렇지도 않은 성격이지만 이렇게 다니고 싶은 공간이 많아서 좋다. 광주에 머물면서 동네사람들과 같이 사부작 사부작 뭔가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

부산, 도쿄, 서울 등과 비교해서 광주라는 도시가 가진 힘은 무엇이라 보는가. 내가 왜 광주를 떠나지 않았을까를 생각해보면 광주 안에서 내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인 것 같다. 누구나 마음의 상처를 하나둘은 안고 살아가겠지만, 살면서 겪은 나의 상처들이 광주가 겪은 크나큰 트라우마 안에서 치유를 받는 듯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다. 광주가 가진 상처만이 아니라, 그 넉넉한 품을 많은 이들이 알게 되면 좋겠다. 광주사람들에게는 강하면서 넉넉한,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광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트라우마 치료 프로그램이나 이를 바탕으로 한 문화콘텐츠는 다른 도시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깊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발리의 우붓에서만 마음의 치유 테라피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 치유의 고장답게, 좀 더 아름다운 자연공간을 많이 조성해서, ‘광주’하면 ‘깊은 아픔을 치료하는 강력한 치유의 힘이 있는 도시’라는 이미지로 널리 알려지면 좋겠다.



서울 출신이고

2013년 아시아문화개발원 근무를 계기로 광주에 왔다.

독립서점 운영자 겸 출판기획자로 활동 중이다.

이야기 여섯

여행자들만이 아니라 광주 사람들을 기다린다

독립서점 책과생활 신현창 대표

서울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뭔가 내 글을 쓰고 싶다는 마음,
내 글을 출판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다고나 할까.
마침 전세 계약기간이 남아있었고 뭔가 이 도시의 속살을 들여다보며
내가 하고픈 일을 하면 어떻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독립서점 책과생활 신현창 대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바라다보이는 광주영상복합문화관 근처 2층에 독립서점 '책과 생활'이 있다. 책과 생활 출입문 앞에는 광주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리플렛 박스가 있다. 책방 문을 열고 들어가면 클래식한 디자인의 나무 서가와 빼곡히 꽂힌 책들이 아름다우면서도 어쩐지 숙연한 느낌마저 준다. 책들의 큐레이션과 수준이 만만치 않다. 책방에서 기획 진행하는 시민참여형 프로그램들의 퀄리티도 상당하다. 책방을 넘어 새로운 문화공간이 광주에 생긴 것이다. 하지만 결코 수익성을 만들기 쉽지 않을 것 같은 독립서점을 연 사람은 서울에서 온 신현창씨(49). 아시아문화개발원에 근무하기 위해 광주로 왔다가 직장 계약이 끝나고는 책방 주인이 되었다.



공간이 너무 좋다. 책들도 더 할 수 없이 좋다. 주로 누가 책을 사는지. 서점 손님 대부분은 광주를 찾아온 여행자들이다. 광주에 있는 서점이지만 정작 광주 사람들보다 외지에서 온 여행객들이 더 많이 찾아온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들렀다가 오신다든지, 다른 비즈니스 때문에 뭐 5·18 관련해서 오신다든지, 서점 매출의 상당 부분은 이런 저런 이유로 광주를 방문한 사람들이 찾아오는 손님들에 의해 채워지는 셈이다. 최근 들어서야 뭐랄까. 광주 사람들, 특히 이삼십 대 젊은 분, 그리고 미술 작가분들이 조금 찾아주고 계신다. 그래서 이게 제가 광주와 연고가 아예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다.



전국 광역시 중 관광객 수가 가장 적다는 광주에서 여행자만 오는 독립서점이 무사히 생존한다는 것은 가능할까.

여행자들이 주로 온다는 것 말고도 수익구조가 열악하다. 시집 한 권을 팔면 1600원이 남는데 주문하는 물류비가 800원이다. 손님들이 한동안 찾는 책들이 있을 때 도매서점에 주문을 하면 제대로 안 올 때가 많고 주문할 때마다 이렇게 물류비가 드니까 좀 힘들다. 처음에는 서점에서 책을 판매해서 그 재정으로 다른 일들을 도모해 보려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되는 구상이었던 거지. 북토크 행사, 핸드드립 커피와 베이커리, 주류판매 등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 작년에 코로나로 적자가 엄청나게 났다. 올해 9월에 처음으로 한 사람 인건비 정도의 수익이 나서 좀 희망을 가져보고 있다. 공공지원을 받지 않고 서점 자체적인 힘으로 수익구조를 만들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쉽진 않은 것 같다.





“서점 손님의 대부분은
광주를 찾아온 여행자들이예요.
광주에 있는 서점이지만
정작 광주 사람들보다
외지에서 온 여행객들이 더 많이 찾아오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들렀다가 오신다든지.
이게 제가 광주와 연고가 아예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책을 파는 것 외에 시도했던 것들이 궁금하다.

2019년 한 해에만 북토크, 강연, 워크숍 등 책과 관련한 프로그램 총 31회를 진행했다. 평균을 내보면 거의 열흘에 한 번씩 서점에서 작가와 독자가 만난 셈이다. 2019년 5월부터는 매주 ‘여행자의 불빛 서점’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을 출판과 연결시키고 싶어서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했는데 출판 연결은 되지 않았고 강연 프로그램들이 수익 구조로는 마이너스였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광주라는 도시에 대한 인문 지식을 강연 형식으로 전달했던 프로그램으로 호응이 좋았고 우리 서점 대표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지금은 코로나로 예정됐던 프로그램이 무작정 연기가 된 상황이지만 온라인을 병행해서 강독회와 글쓰기 수업도 진행을 하고 있다. 출판사로 활동 영역을 확장했고 첫 출판물로 지역의 관점에서 광주의 7,80년대 음악을 조명한 <모모는 철부지>라는 책을 내기도 했다.

지역사회와 연계를 한다거나 지원을 받는 것은 없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콜라보레이션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있다. 라 이브러리파크에서 책 관련 행사를 할 때 서점과 연계를 한다. 이번에는 창·제작 담론 프로그램으로 강독 행사를 연다. 그 외에 문화기획 회사인 유스컴퍼니 프로그램에 여행자 대상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거나 북토크 같은 행사를 하긴 했다. 아직 교육청이나 광주시 같은 공공기관과 협업이나 지원은 특별히 없었다. 이 일이 지역 네트워크가 굉장히 간절할 일인데 서점 일만으로 워낙 바쁘다 보니 그런 걸 넓혀가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여행자들이 주로 온다는 것 말고도 수익구조가 열악해요.
 시집 한 권을 팔면 1600원이 남는데 주문하는 물류비가 800원.
 이 일이 지역 네트워크가 굉장히 간절한 일인데
 서점 일만으로 워낙 바쁘다 보니 그런 걸 넓혀가는 데는 한계가 있죠.”

출판사와 아시아문화개발원 같은 직장에서 책방 주인으로,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을 할 때 백남준아트센터 이야기를 책으로 낸 적이 있다. 그 기간이 길진 않았지만 어려운 프로젝트를 하나씩 해내면서 그때마다 많이 성장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인연이 된 분이 아시아문화개발원을 소개해줬고, 광주와 인연이 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예술극장과 문화정보원 관련 일을 했는데 책 만드는 일이 주 업무였다. 하지만 출판 프로세스에 맞지 않게 일이 돌아가고 전당 개관 준비로 출판 관련 일이 밀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 보고서 윤문을 하고 있었다. 일에 대한 감도 많이 떨어지고 보람도 느끼질 못했다. 서울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뭔가 내 글을 쓰고 싶다는 마음, 내 글을 출판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다고나 할까. 마침 전세 계약기간이 남아 있었고 뭔가 이 도시의 속살을 들여다보며 내가 하고픈 일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서점 운영이라기보다는 출판 스튜디오를 생각하며 친구들과 함께 만듦 것이다.

어쨌든 직장 계약이 끝난 후에도 광주에 머무르게 된 것은 광주에 대한 어떤 마음이었을까.

말했다시피 얻어둔 방의 전세 계약기간이 남아 있기도 했지만 뭐랄까, 이상한 애잔함 같은 게 있었다. 광주의 건물들, 동네와 골목길에는 어떤 슬픔의 정서가 있더라. 비단 5·18 때문만은 아니고 그냥 이 도시가 지닌 색깔인 것 같다. 금남로, 남동, 북동 이런 동네를 걸어서 돌아다닐 때 느껴지는 아쉬움. 그 누구도 나를 붙잡지 않았는데 매정

하게 떠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같은 게 있었다. 대학 때 경주에 살았는데 관광도시여서 그런지 굉장히 화려하다고 느꼈는데 광주는 어쩐지 슬프다.

서점을 하기 전, 아니 직장인이 되기 전 신현창은 어떤 사람이었나.

고등학교 때는 시를 썼다. 그때 나의 국어 선생님이 정희성 시인이셨다. 선생님 시를 통해서 5·18도 알게 됐다. 5·18을 몰랐으면 어떤 사람이 됐을지 모르겠다. 국문과 졸업하고 취업을 하는데, 동국대 경주 캠퍼스 출신이라 좋은 회사에서는 족족 떨어지더라. 경주캠퍼스를 빼라는 말도 들었는데 웬지 그러기가 싫었다. IMF로 집안이 많이 기울어지고 음반매장, 비디오 가게, 지역신문사, 출판사 온갖 일을 했다. 음반, 비디오, 책, 3대 기록매체에서 일은 다 해본 것 같다.

서점을 시작한 것도 글을 쓰고 싶다는 마음에서였다고 했는데 그 소망은 여전히 유효한가.

당연히 글 쓰고 싶다는 생각은 아직 있다. 그런데 서점 운영이 좀더 안정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광주일보에서 독립서점 탐방 원고를 청탁받아서 연재한 적이 있는데 그 글도 마감율 거의 지키지 못했다. 서점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별도로 출판 외주도 하고 디자인 외주도 하고 다른 일들을 하다 보니 내 글을 쓸 시간을 마련하기가 참 힘들다. 얼마 전에는 새벽 타임에 편의점 알바라도 해볼까 해서 알아봤는데 나이 때문에 안된다고 하더라.

광주는 문화도시라고들 한다. 하지만 서점은 힘들다. 왜 그럴까.



“광주의 건물들, 동네와 골목길에는 어떤 슬픔의 정서가 있더라구요.
비단 5·18 때문만은 아니고 그냥 이 도시가 지닌 색깔인 것 같은데
금남로, 남동, 북동 이런 동네를 걸어서 돌아다닐 때 느껴지는 아쉬움.
그 누구도 나를 붙잡지 않았는데 매정하게 떠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같은 게 있었죠.”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살아가는 도시에서 일상의 여유를 찾지 못한다. 여행을 떠났을 때나 비로소 여유가 생긴다. 그래서 여행자들만이 우리 서점을 찾아와 책을 사는 것일 수도 있다. 이 동네 사람들은 다른 동네의 서점에 가서 책을 사고,

비단 서점뿐 아니라 광주극장 같은 독립영화관, 연극하는 분들 다 마찬가지일 거다. 일상의 공간에서 문화를 소비할 수 있는 여유가 별로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살면서 서점을 찾는 분들은 정말 감사한 분들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못한 점이 있었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다른 분야와 연결점을 만들고 동네 네트워크도 만들기 위해 움직여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광주에서 독립서점 주인으로 산다는 것, 어떤 각오들을 하게 하는 일일까. 힘이 들 때면 그때 바로 고향으로 갔었어야 한다는 후회를 안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뭐 대단한 사명감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아직은 못한 것들, 해야지 해야지 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 장렬히 전사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다 해보고 싶다. 물론 장렬히 전사하지 않고 책과 생활과 함께 광주에 오래 남았으면 더 좋겠다.

스튜디오 버튼 대표 김호락 —

광주에 와서 창업을 하고,

처음 1년 동안은 뺏속까지 외로웠다.

그때의 외로움이 작품을 만드는 원동력이었던 것 같다.

거절당하고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 말고

지원사업에 많이 도전했으면 좋겠다.

일본어 통번역가, 북구문화의집 시민강사 조숙위 ——

내가 왜 광주를 떠나지 않았을까를 생각해보면
광주 안에서 내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인 것 같다.
치유의 고장답게, 좀 더 아름다운 자연공간을 많이 조성해서,
'광주'하면 '깊은 아픔을 치료하는
강력한 치유의 힘이 있는 도시'라는 이미지로
널리 알려지면 좋겠다.

독립서점 책과생활 신현창 대표 ——

비단 서점뿐 아니라 광주극장 같은 독립영화관,
연극하는 분들 다 마찬가지로 일 거다.
일상의 공간에서 문화를 소비할 수 있는 여유가 별로 없다.
장렬히 전사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다 해보고 싶다.
물론 장렬히 전사하지 않고 책과 생활과 함께
광주에 오래 남았으면 더 좋겠다.

이야기 일곱



주체와 타자 사이의 경계를 넓히기 위해

미디어아트 작가겸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연구원 김안나

광주라는 이 도시 자체도 뭔가 언더, 이방인성이 있다.
사회적인 아픔이 큰 도시지만 그 아픔이 광주의 아이덴티티,
엄청난 힘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미국 로스엔젤레스 출신.
2017년 ACC 창제작 레지던스 참여 후
4년째 광주에서 살아간다.
미디어아트 작가 겸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연구원으로
활동 중이다.



미디어아트 작가 겸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연구원 김안나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 지정된 13개 도시가 참여한 대규모 온라인 예술협업 프로젝트 '2021 City to City: Play'는 코로나19 팬데믹의 불확실성 속에서 삶과 세계의 관계회복을 시도했다. 이 프로젝트에는 광주를 비롯해 미국 오스틴, 프랑스 앙기앵레벵, 일본 삿포로, 독일 칼스루에, 영국 요크 등의 도시가 참여하고, 각 도시를 대표하는 13명의 작가가 참여를 했다. 광주를 대표하는 작가로는 김안나 작가(43)가 선정됐다. 로스앤젤레스 출신의 김안나 작가가 광주와 인연을 맺은 것은 2017년 ACC 창·제작센터 방문창작자 레지던시 참여하면서부터다. 그 인연으로 광주에 정착을 했고, 지난 해 7월부터는 광주과학기술원 한국문화기술연구소에서 작가 겸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 전시한 작품 <breath(숨)>는 천국처럼 보이는 숲이지만 실제의 대기환경지수와 결합이 되어 시시각각 변화를 거듭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2020년도 제작된 작품인데 그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먼저 퍼진 대구에 있었다.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 호흡에 가장 치명적인 미세먼지, 환경적 면에서 '숨'과 사회적인 면의 '숨'을 중첩되게 생각한 것이다. 당시 미국에서 경찰에 의해 흑인이 사망했는데 사망 원인이 목이 눌러서 숨을 쉬지 못한 것이었다. 그때 일어난 운동 'black lives matter'의 구호가 'I can't breath. (나는 숨 쉴 수 없다)'였다. '숨'이라는 단어 자체가 상징적으로 다가온다고 생각했다. 심호흡, 깊은숨을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필요로 한다는 생각에 작품 구상을 하게 되었다.

로스엔젤레스 출신이고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했다. 한국에서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있는지.

친척을 방문하러 한국에 왔다가 경주에 계시는 동양화가 선생님 클래스에 참여하게 되었다. 처음에 1년간 있을 생각이었는데 점점 이어져서 이렇게 됐다. (웃음) 그 뒤로 대구의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여러 전시에도 참여를 했다. 광주에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ACC 작가 레지던시 1기와 2기에 참여하면서 오게 됐다.

화가로서의 시작도 미디어아트였다.

처음엔 회화로 시작했다. 그걸 입체화시켜 설치도 했다. 환경 문제를 주제로 한 작품이었는데 전시가 끝나고나니 결국 쓰레기가 되고 말더라. 거기에 허무함을 느꼈다. 그래서 점점 빛이나 영상을 이용한 디지털 매체로 관심이 옮겨갔다.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탈물질화로 이어지게 됐다고나 할까. 그런데 미디어아트를 하다보니 여기서도 또 모순점이 있다. 미디어라고 에너지를 안 쓰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그렇게 다 생각을 하면 결국 아무 일도 못하고 숨만 쉬고 있어야 하니까. (웃음)

환경문제나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을까.

내가 대학에 다니던 때에 미국에서 911테러가 일어났다. 미국에서 나고 자란 입장에서 보자면 911테러는 사회적으로도, 나 개인에게도 엄청난 쇼크였다. 사실 미국 땅이 직접적인 공격을 받은 것은 세계 2차 대전 이후 처음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 911테러를 겪으면서 국가 간의 이해관계, 정치적 이슈가 일반 사람들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



“911 테러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조사팀 리포트에
 ‘정부의 상상력이 떨어져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뜻의 그런 말이 있더라.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어떤 말로 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규정대로만 하는 것,
 공무원 마인드. 뭐 이런 말이 되지 않을까 싶다.”

는 사실에 주목하게 됐다. 환경 문제도 정치적으로 얽혀있는 부분이 많고, 역시 일반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슈다. 그래서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다룬 작업같은 걸 했다. 그냥 ‘자연을 살리자’는 구호가 아니라 관점의 전환, 시스템적인 문제까지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었다.

일월오봉도를 모티브로 한 <Oh Brothers!> 연작은 어떤 의미인가.

일월오봉도가 절대적인 왕의 권력을 상징하는 이미지인 반면에 주인공인 Boy들은 주체권을 박탈당한 권력이 없는 존재들이다. 이런 존재가 AI를 비롯해서 우리 사회에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주체권이 없는 이 존재들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존재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만든 작품이다. 이 캐릭터들은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데 무기력하게 공간을 부유하거나(Floating Boy), 환경에 순응하여 카멜레온처럼 적응해 나가거나(Nature Boy), 행위의 반복을 통해 해프닝을 만들어내거나(Violent Boy), 혹은 반복적 행위를 통해 무언가를 극복하는(Rock Boy) 식이다. 자아와 구분되는 타자, 나의 자아인 여성과 반대되는 남성 타자, 그러나 남은 아닌 타자이기에 캐릭터를 brothers로 상정했다. 주체와 타자와의 경계, 그 경계를 확장하고 흐릿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내게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것 같다.

작가로서 내 작품에 물성이 없는 것에 아쉬움은 없을까.

존재감의 각인,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작가라면 누구나 있을 것이다. 최초의 시각 예술도 동굴에 핸드프린팅으로 시작이 됐으니 인간

의 기본적인 욕망이다. 하지만 물성이 없기에 생기는 영역도 있다. 미디어 전시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서 오히려 비대면이 중요해진 지금 더 부각이 되는 것 같다. 세계적으로도 사이언스가 트렌드이기도 하고 이미 60년대부터 매체 자체가 메시지다 이런 말이 나오기도 했다. 생활 자체도 지식을 담아 놓을 필요도 없게 됐다. 핸드폰 없으면 다들 못살게 됐고, 특히 한국은 기술 발전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세지 않나. 사회의 속도를 이론이나 철학이 따라오지 못하는 시대가 됐고 그래서 흥미롭기도 불안하기도 한 것 같다.

미디어아트는 기술 지식이 필요하고 다른 분야와의 협업도 많이 필요할 것 같다. 융합이라는 것 자체가 쉽지도 않고 한국에서 융합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다보니 각 분야 전문가들이 자기 필드의 시야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 융합이 트렌드한 키워드로 많이 쓰여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성공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다. 내 작업의 중요한 개념이 자아와 타자의 경계선 확장인데 그런 의미에서 지식의 바운더리를 확장하는 것도 내게는 무척 중요하다. 그래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 이곳 한국문화기술연구소에도 그래서 온 거고.

한국에 와서도 여러 도시를 거쳐가며 작업하고 있으신데?

미국은 기업지원이 많은데 유럽이나 한국은 국가지원이 많은 것 같고 그 점은 좋은 것 같다. 작가들에게 기회가 많으니까. 기회를 주는 만큼 또 개입이 많기도 하다. 일단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전문 인력들이 알아서 하게 하면 좋은데 행정적인 개입이 들어가면 복잡하고 골치가 아파지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건 비단 한국뿐 아니라 세계



“주체와 타자와의 경계, 그 경계를 확장하고 흐릿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내게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지식의 바운더리를 확장하는 것도 내게는 무척 중요하다.
 이곳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에도 그래서 온 거고.
 광주에 자리 잡게 된 큰 이유 중 하나가 내가 생각하는 작업과 오버랩되는 부분이 많다.”

적으로 다 비슷한 것 같다. 911테러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조사팀 리포트에 “정부의 상상력이 떨어져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뜻의 그런 말이 있더라.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어떤 말로 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규정대로만 하는 것, 공무원 마인드. 뭐 이런 말이 되지 않을까 싶다.

미국 교포이기도 하고 여기 와서도 이곳저곳을 이동하면서 살고 있다. 늘 이방인의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

미국에서도 하이픈 아이덴티티, 하이브리드 정체성을 갖고 살았고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이방인이다. 이런 정서가 뿌리로 작용하지 않나 생각한다. 아까 말했던 이중성의 테마 이런 부분도 여기서 나오는 게 큰 것 같다.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미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오면서 생겨난 문화충격, 그런 것들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고. 광주라는 이 도시 자체도 뭔가 언더, 이방인성이 있다. 사회적인 아픔이 큰 도시지만 그 아픔이 광주의 아이덴티티, 엄청난 힘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광주에 온 지 1년 남짓 된 걸로 알고 있다. 광주는 어떤 도시라고 느끼나.

작년 코로나가 퍼질 때 동료 작가의 초청으로 피난처로 오다시피 했다. 친한 작가분들과 코로나 블루를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화목한 시간을 보냈다. 매일 밤 카드 게임도 하고 주변에 투어도 가고, 그래서였다. 나에게 광주는 뭔가 정답게 느껴지는 도시인 듯 하다. 너무 딱딱한 현대사회의 모습보단 여유롭고 사람냄새도 나는? 주위에 자연 풍경을 많이 감상할 수 있고, 자주 간 곳 중 하나가 소쇄원이었는

데 한국에서 다녀본 곳 중 으뜸가는 곳으로 느껴졌다. 또 하나, 광주에 자리를 잡게 된 큰 이유 중 하나가 광주가 유네스코 창의도시, 미디어아트 도시로 내가 하는 작업과 오버랩되는 부분이 많다

광주가 미디어아트 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정말 중요한 지점은 뭐라고 생각하나.

그건 좀 복잡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도시 차원에서 비전과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트도시의 표방, 그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광주는 특이한 것이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도 그렇고, 새로 생기는 미디어아트플랫폼센터(AMT)도 그렇다. 그런데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콘텐츠 구축도 정말 중요하다. 그래야 지속성이 생기고 명성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야기 여덟



더 넓게 더 자주 유기적 문화적 교류를

광주광역시 서구청 축제 담당 사무관 김성환

한 사람이 기획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의견, 활동,

이런 과정이 잘 남고 그들도 다 성장을 하는 것이 멋있었다.

나도 그런 걸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언젠가 축제학교를 세워서 다양한 인력을 키우고 싶다.

전북 군산 출신으로

2013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데미 수강 후

8년째 광주에서 살아가고 있다.

축제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청 축제 담당 사무관 김성환

그를 인터뷰한 곳은 서구 익새축제 예정지인 영산강 자전거길 안내센터였다. 다섯 해 동안 매년 가을 열린 익새축제는 그가 축제 진행을 처음 맡은 올해 전면 온라인으로 전환이 됐다. 「현장 프로그램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진행하지 않습니다」라는 안내문과 「익새축제 온라인 오시는 길」이 적힌 팸플릿에 그의 안타까움과 노고가 보이는 듯했다. 토목공학과 졸업, 파티플래너 활동, 축제기획자, 이제는 광주광역시 서구청의 공무원까지 다채로운 이력을 가진 김성환(38)씨. 전북 군산이 고향인 그는 축제를 찾아 광주에 왔고, 추억의 충장축제, 세계청년축제 등 광주의 큰 축제들에서 활약을 했다.



파티플래너에서 공무원이 되었다. 선 자리가 바뀌면 보이는 것도 달라진다는 말이 있는데 어떤 것이 달라졌을까.

일단 말을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고 여러 행사를 관리 감독도 해야 하고, 조례도 알아야 한다. 전처럼 도전적으로 펼쳐내기 보다는 안정적인 방향으로 좀 바뀌었다고 해야 하나. 비록 계약직이지만 나처럼 되고 싶은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모범도 되어야 한다. 사실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 임기 내에 뭔가 성과를 보여야 하는데 그 성과가 오로지 방문객으로만 판가름이 난다. 코로나까지 덮친 이 상황에 방문객의 한계는 명백하지 않나. 과정적인 부분이 다 묻히는 것이 많이 아쉽다. 아직 공무원 사회가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는 측면이 있고 발전, 개선되어 가는 과정인 것 같다.

그래도 현장에서 많이 활동해본 경험이 관에서 일을 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예전에 행정기관과 일을 할 때 이해가 되지 않았던 점들이 많이 이해 된다. 반면에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고충을 아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냥 해버리게 된다. 예를 들면 익새축제 포토존을 갑자기 옮겨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 그런 걸 그냥 내가 옮겨버린단다가. 옛날에 의뢰를 받아 일할 때는 공무원들이 이해가 되지 않기도 했다. 왜 그냥 해버려도 될 일을 굳이 나를 불러서 시킬까 하는 그런 의문? (웃음) 아무래도 대행사의 입장을 아는 담당자이다 보니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생각한다.

이곳에서 일주일 후 익새축제가 열린다고 들었다. 그런데 비대면이라고. (하아.. 깊은 한숨) 솔직히 축제하는 사람 입장에서 비대면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다. 하지만 비대면이 원칙이라는 결정이 내려졌고 (팜플렛을 내밀며)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온라인으로 바뀌었다. 원래는 여기가 메인무대인데 너무나 안타깝다.

유튜브로 개막식을 하면 사람이 몇 명이나 오겠나. 원래 준비했던 프로그램이 60개 정도였고 준비과정이 6개월이다. 당연히 그 과정에 인건비도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을 인정받는 것도 정말 힘들다. 비대면 축제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이해받기가 어렵다. 예산도 줄이고 사람도 줄이고 아무리 줄여도 해야 할 일은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사람들이 일을 했다는 증거를 최대한 남기려고 정말 노력한다.



“광주는 문화적인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양질의 땅임에 분명하죠.
광주문화재단이라는 지원기관이 존재하고 예술인들의 결속력과 추진력도 좋은 편이고,
2019년에 세계청년축제 감독 지원조건이 3년 이상 광주에 거주하는 것이었는데
거기에 지원하면서 이제 나도 광주 사람이라는 걸 다시금 느끼게 됐죠.”

토목공학을 전공했는데 파티플래너라는 직업은 어떻게 갖게 되었을까.

이쪽 분야에서는 관련 전공을 한 사람은 거의 없다. 나 같은 경우는 군대에서 잡지를 보다가 이 파티플래너에 대해 알게 됐다.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직업명이 주는 화려하고 평범하지 않은 면에 처음에는 끌렸던 것 같다. 무작정 서울에 상경해서 사설 교육기관에서 수료를 하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맨날 노는 일 같지만 파티를 기획하는 일에는 정말 많은 정보와 새로운 아이템이 필요하다. 정말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다. 그러다 보니 협회도 설립하고 책도 출간하고 그랬다.

고향이 군산이고 파티플래너 활동은 주로 서울에서 했다. 어떤 계기로 광주에 오게 되었을까.

지인의 권유로 2013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문화 아카데미를 수강하게 되었다. 거기서 우수학생으로 선발도 되었고 취업까지 연결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여러 알바를 하며 버티다가 비엔날레 홍보사업부 계약직으로 1년 동안 근무를 했다.

다시 1년은 충장축제, 김치축제, 프린지페스티벌, 레드페스타 등 여러 축제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했고, 또다시 광주비엔날레에서 1년 동안 같은 업무를 했다. 그러다가 광주비엔날레가 끝날 무렵 충장축제에 영입이 돼서 기획팀장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뒤로 광주 여러 축제에 계속 참여하게 되면서 광주 사람인 아내까지 만나게 됐다. 이제 아이도 태어났으니 완전히 광주에 안착을 한 셈이다.

이 지역 사람이 아닌데 오래된 이 지역 축제에서 역할을 했다. 어려움은 없었나. 충장축제 때는 번영회 회장님들과 상가분들을 다 만났다. 만나고 만나고 또 만나고, 이런 시간이 정말 큰 자양분이 되었던 것 같다. 충장 축제는 대한민국 10대 축제이고 지역의 대표 축제이다 보니 정말 많이 배웠고 당시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를 한 후 광주에 있는 대부분 축제(김치축제, 프린지페스티벌, 레드페스타, 아트피크닉 등)를 다 하게 되었다. 유일하게 하지 않았던 게 역새 축제였는데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있다.

지자체 축제에 대한 비판들도 있다. 이런 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사실 지자체 축제가 비슷비슷하게 보이는 것은 각 축제의 기획적 측면보다는 항상 들어오는 야시장의 모습에서 받는 인상이 크다고 생각한다. 전국구로 활동하는 분들이라 보니 다 똑같은 팀들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을 조정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모습이 곧바로 축제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또 공연 섭외도 기획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갈 때도 많다. 축제 기획 의도에 따라 상급자들을 설득하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고… 뭔가 의도한 대로 젊고 컨셉이 분명한 축제를 만드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축제 하나가 열리는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얹혀 있다.

그렇다면 축제를 제대로 즐기는 자세는 어떤 것인가.

사실 모든 축제에는 타겟이 있다. 아트피크닉은 어린이, 충장축제는 과거의 추억을 회상하는 어르신들, 김치축제는 음식을 좋아하는 사





“특히 경상도와의 유기적 관계 형성이 더 있었으면 합니다.
전라남도나 북도라도 긴밀한 문화정책을 통해 동반성장을 했으면 좋겠고
타 도시와 다양한 문화교류를 하는 것은 문화적 성장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일이라 생각해요.”

람. 이렇게 축제는 다양한 타겟을 갖고 기획되고 이루어진다. 지금의 역사 축제는 도심에서 벗어나 잠시라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것이 목적이고, 이런 축제의 컨셉을 분명히 알고 가면 훨씬 더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다양한 컨셉의 축제, 문화행사를 기획하려면 트렌드에도 민감해야 하고 설 새 없이 아이디어를 얻어야 할 것 같다. 아이디어 창구는.

SNS다. 지역에 있지만 관심 분야의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게시물을 올리는지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 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그런 분들과 소통하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고 어디선가 보고 들은 것 중 우리의 상황과 맞는 것으로 새롭게 시도하기도 하고 기존의 것들을 바꾸기도 한다. 해외나 타지방의 성공사례를 참고하기도 한다. 송정역 시장 2주년에 1913센티미터 생일떡 만들기, 전라도 천 년 타종식의 1000미터 가래떡 만들기 등이 그런 식으로 탄생된 행사다. 이런 이벤트는 언론에 이슈화도 된다.

문화기획자로서 또 부모로서 광주에 사는 것은 어떤가.

내 고향 군산에서 광주는 엄청난 대도시였고 정말 가보고 싶은 동경의 도시였다. 아카데미 수강을 할 때 지역에 대한 고찰이 많이 필요해서 열심히 들여다본 시간들이 많았는데 광주는 문화적인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양질의 땅임에 분명하다. 광주문화재단이라는 지원기관이 존재하고 예술인들의 결속력과 추진력이 좋다. 2019년에 세계청년축제 감독을 했는데 지원조건이 3년 이상 광주에 거주하는 것이었다. 거기에 지원하면서 이제 나도 광주 사람이라는

걸 다시금 느끼게 됐다. 얼마 전 청약이 당첨돼서 집도 이사했고(서울 같으면 꿈도 못 꿀 일 아닌가.) 또 전에 살았던 양림동도 정말 좋았다. 호랑가시나무 언덕에 올라가 돌담길 앞 벤치에서 별 보는 것을 정말 좋아했다. 지금도 힘들 때는 그곳에 가서 산책을 한다.

앞으로 축제는 어떻게 변해갈까. 축제를 만들어온 사람으로서 어떤 미래를 꿈꾸나.

한강 몽땅페스티벌에 갔는데 서포터즈 운영도 정말 잘되고 푸드트럭, 아티스트 공연 등이 다 조화롭고 홍보 과정 기록도 잘 남겼더라. 한 사람이 기획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의견, 활동, 이런 과정이 잘 남고 그들도 다 성장을 하는 것이 멋있었다. 나도 그런 걸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이제 앞으로의 축제는 대규모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는 것보다 하나의 컨셉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질 거라고 조심스레 예측해본다. 어느 분야나 그렇겠지만 특히 젊고 새로운 인력이 많이 필요한 분야다 보니 후배 양성에도 정말 관심이 많다. 언젠가 축제학교를 세워서 다양한 인력을 키우고 싶다.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광주에서 문화관련 공무원이 됐다. 바람이 있다면.

광주는 멋진 곳이다. 지금까지 잘 해왔다고 본다. 달빛동맹으로 대구와 많은 문화교류를 하듯 타지역, 특히 경상도와의 유기적 관계 형성이 더 있었으면 한다. 전라남도나 북도와도 긴밀한 문화정책을 통해 동반성장을 했으면 한다. 타 도시와 다양한 문화교류를 하는 것은 문화적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이야기 아홉



생명의 영역에서 아직 할 일이 많은 도시

더펫하우스 협동조합 정욱 대표

독일 같은 경우는 펫샵이 없다. 동물을 사고 팔 수가 없다.

유기동물을 입양하기 위해서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우리 동물복지정책을 보면 독일에서 가져온 것들이 많은데

근본적인 것들은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



서울 출신이고,

2010년 농협 취업을 계기로 광주에 왔다가

11년째 광주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

반려동물 관련 교육 일에 종사하고 있다.

더펫하우스 협동조합 정욱 대표

유기동물 발생 억제를 위한 교육사업과 동물행동에 관련된 이해교육을 하는 더펫하우스 협동조합과 달빛고양이 협동조합 정욱 대표(44). 서울 출신이고 중앙대학교에서 생명공학을 전공한 그가 광주에 처음 온 것은 광주의 농협에 취직을 했기 때문이었다.

광주땅을 처음 밟았던 2010년도만 해도 그는 길거리에서 만나는 개를 피해 다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유기견 코비를 만나면서 인생이 바뀌었다. 유기동물을 구조해 입양을 보내는 일을 하기 시작했고 동물병원 원장님의 소개로 알게 된 동물 훈련사와 함께 더펫하우스 협동조합을 만들었다. 하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식용으로, 투견으로, 누군가의 반려견으로 유통되는 개들. 그러다 버려져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유기동물들. 동물은 엄연한 생명임에도 악순환은 거듭되고 있다는 사실, 그 당연함을 책임을 지느라 정욱 대표는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이 바쁘다.



반려견 코비를 만난 것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했다. 지금 모습을 보면 믿어지지 않는데.

정말로 동물을 겁냈다. 슬슬 피해다닐 정도로. 그런데 아는 형이 강아지를 입양하러 보호소에 가는 길에 따라갔다가 영겁결에 코비를 입양하게 되었다. 그때만 해도 보호소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게 추첨제였는데 당첨이 되는 바람에. 입양을 하고 나서야 유기동물 문체에 눈을 뜨게 되었다.

보통 유기동물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면 보호단체에 후원을 한다던가 구조 작업을 먼저 생각하는데 교육 쪽 일을 하고 있다.

코비를 입양했을 때 잘 모르니까 엄청 공부를 하고 키우기 시작했다.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 잘 모르고 키우니까 소통이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버리는 거다. 동물들이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니까 답답해하고 화내고 그러다가 버리게 된다. 초반에는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교육만 생각했는데 지날수록 어린이나 청소년을 교육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 교육을 통해서 생명에 대한 것, 동물에 대한 것을 알아야만 나중에 쉽게 동물을 사고 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다.

동물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비슷하지만 관점이 좀 다른 것일까?

나같은 경우 우선순위가 교육인 거고, 구조나 치료가 우선이거나 입양이 우선인 분들도 있다. 동물을 구하고 보호하는 건 똑같은데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의 차이인 거다. 구조라는 것은 그 생명체를 끝까지 책임졌을 때 끝난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동물들을 구조해서 보호소에 보내면 끝난 걸로 생각하지만 입양 간 뒤에도 다시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

“여기 고양이 있으니까 데려가세요.” 이런 전화가 여기에도 굉장히 많이 온다. 이렇게 전화를 하고 한 생명을 살렸다고 굉장히 만족을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동물이 사는 게 아니다. 본인이 데리고 살든 입양을 보내든 해야 진짜 구조다. 여기에 전화하는 건 결국 책임을 전가하는 것 아닌가.



일을 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힘든가.

우리나라는 동물을 생명이 아닌 재산으로 본다. 동물보호법 자체도 그렇다.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개장사’라는 표현도 많이 들었다. 동물 갖고 돈 번다고 깔보는 시선도 당연히 있다. 반려동물 시장이 워낙 커지다 보니 이제는 그런 극단적인 표현은 줄었지만 여전히 인식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다. 조심스런 부분이긴 하지만 특히 우리가 하는 교육에 대한 부분은 지방으로 올수록 인식이 굉장히 낮다. 사건이 터진 후 수습을 하는 식이 대부분이고 쓸모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많은 것 같다.



“지방으로 올수록 사람들이 동물에 대해
돈을 쓰는 걸 부차적으로 생각합니다.
광주보다는 오히려 타지역의 수요가 더 있는 편이었는데
코로나가 터진 후에 매출이 거의 60% 이상 감소가 됐죠.
강형욱씨 프로그램 등으로 인식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교육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교육 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부탁한다.

더펫하우스 협동조합에서는 유기견을 입양 보낸 후 입양자 교육을 하고 달빛 고양이에서는 유기묘를 입양 보내고 입양자 교육을 한다. 동물도 교육하고 입양자도 교육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 축으로는 어린이, 청소년 대상의 교육이 있는데 어린 친구들이 동물과 함께 하며 교감하는 동물 매개 치료과정, 반려동물관련 진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과정이 있다. 학교에 가서 생명존중 교육을 하기도 한다. 반려동물 관련된 전문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교육 과정도 있다. 일반인 평생교육으로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고 교육하는 커리큘럼을 10회 정도 짜서 진행하는 것이다.

동물매개치료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동물매개치료라는 걸 전혀 모를 때 경험으로 알게 된 부분이 있다. 직장을 그만두고 과외를 얼마간 했을 때 일인데 그 때 굉장히 다양하고 특이한 학생들이 많이 왔다. 과외를 할 때 애들이 당연히 말을 안 듣는다. 시간도 잘 안 지키고 하라는 것도 잘 안하고. 그런데 동물과 함께 있으면 애들이 달라지는 거다. 우리집 강아지를 이뻐하면서 말하는 것부터 태도가 바뀌어 가고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가 정말 심했던 친구까지 많이 바뀌는 걸 봤다. 이런 걸 경험한 후 동물매개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니 그런 교육이나 과정이 있는 거다.

더펫하우스 협동조합 안내에 보면 반려동물과 관련된 모든 교육이 총 망라되어 있다. 교육에 대한 수요는 있는 편인가?

아직은 힘들다. 아까도 말했지만 지방으로 올수록 사람들이 동물에

대해 돈을 쓰는 걸 부차적으로 생각한다. 광주보다는 오히려 타지역의 수요가 더 있는 편이었는데 코로나가 터진 후에 매출이 거의 60% 이상 감소가 되더라. 강형욱 씨 프로그램 등으로 인식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교육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것 같다.

대부분의 동물 보호 활동이 후원으로 이루어지는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원없이 운영하는 이유가 있을까?

유기동물 일을 하면서 후원받는 단체에도 있어 봤는데 만원, 이만원 후원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걸 알았다. 모든 것에 일일이 확인을 받아야 하고 올이 돼야하는 그 시스템이 싫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이 일을 하자는 생각으로 회사를 만든 것이다. 대부분의 수익 창출은 반려견 교육, 보호자 교육으로 이루어지지만 부족하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 발전시켜서 센터도 만들고 위탁도 받아서 좀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인식도 중요하지만 동물 관련 법적, 제도적으로 바뀔 부분도 많을 것 같다.

동물을 생명이 아닌 재산으로 분류하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불법 개 농장을 급습해도 사유재산이라서 개를 데려올 수가 없다. 농장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그 사람들이 저지른 불법도 생명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펜수 방출이라든가 불법건축물 같은 것이다. 벌금을 내면 그만이다. 동물에 대한 법들도 살펴보면 개별 동물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조건 목줄이 2m 이하여야 된 다든가 엘리베이터에서는 안고 타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개 입장



에서 봤을 때는 더 두려움을 주게 만드는 상황일 수도 있다. 우리는 이제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선진국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 견주어 봐야 한다. 독일 같은 경우는 팻샵이 없다. 동물을 사고 팔 수가 없다. 유기동물을 입양하기 위해서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우리 동물복지 정책을 보면 독일에서 가져온 것들이 많은데 근본적인 것들은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

아직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광주에서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도 궁금하다.

광주는 불모지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은 도시다. 2012년도에 코비를 만나고 나서 이 일을 시작했다. 2년 동안은 서울에 있는 단체와 동물보호활동을 했는데 이런 활동을 광주에서 광주 사람들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2014년도에 광주에 단체를 만들기로 결심하고 사람을 찾았고 2016년도에 회사를 만들었다. 일단 좋은 직장도 그만두고 이곳에 자리를 잡았으니 부모님에게 죄송스러워서라도 여기서 일을 잘 만들어가야 한다.

여러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은 뭘까?

책임감, 생명에 대한 책임감 아닐까. 코비를 비롯해서 내가 데리고 있는 동물들, 또 버려져서 계속 우리에게 오는 개와 고양이들, 이런 동물에 대한 책임감이 나를 밀고 가는 것 같다.



“광주는 볼모지죠.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은 도시죠.
 2012년도에 코비를 만나고 나서 이 일을 시작했는데
 2년 동안은 서울에 있는 단체와 동물보호활동을 하다가
 이런 활동을 광주에서 광주 사람들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디어아트 작가겸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연구원 김안나 ——

일단 중요한 것은 도시 차원에서
비전과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트도시의 표방, 그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다.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콘텐츠 구축도 정말 중요하다.
그래야 지속성이 생기고 명성을 만들 수 있으니까.

광주광역시 서구청 축제 담당 사무관 김성환 ——

특히 젊고 새로운 인력이 많이 필요한 분야다 보니
후배 양성에도 정말 관심이 많다.
언젠가 축제학교를 세워서 다양한 인력을 키우고 싶다.

더펫하우스 협동조합 정욱 대표 ——

좋은 직장도 그만두고 이곳에 자리를 잡았으니
부모님에게 죄송스러워서라도
여기서 일을 잘 만들어가야 한다.